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김 동 운

2019년 8월

#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비교 연구

지도교수 라 공 우

김 동 운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김동운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6월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s Major Export Commodities in the Chinese Market

Dong-Wo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ong-Woo L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9.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2
3. 논문의 구성 체계 .....	3
제 2 장 선행연구 및 한·중 무역규모 .....	4
제 1절 선행연구의 검토 .....	4
1. 의료기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선행연구 .....	4
2. 자동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선행연구 .....	6
3. 화장품 관련 산업의 경쟁력 선행연구 .....	8
제 2절 한·중 무역규모 현황 .....	10
1.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	10
2.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	11
3. 한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	12
4. 중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	16
5. 한국의 대중국 연도별 품목별 수출입 현황 .....	17
제 3 장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비교 .....	21
제 1절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과 경쟁 대상국의 RCA 분석 .....	21
1. 현시비교우위(RCA) .....	21
2. 현시비교우위(RCA)를 통한 대세계 및 대중국 경쟁력 비교 .....	22
제 2절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과 경쟁 대상국의 TSI 분석 .....	33
3. 무역특화지수(TSI) .....	33
4.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한 대세계 및 대중국 경쟁력 비교 .....	35

제 4 장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동태적 분석 .....	45
제 1절 현시비교우위 동태적 분석 .....	45
1. 세계시장에 대한 현시비교우위 추이 분석 .....	45
2. 중국시장에 대한 현시비교우위 추이 분석 .....	50
제 2절 무역특화지수 동태적 분석 .....	56
1.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추이 분석 .....	56
2. 중국시장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추이 분석 .....	61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67
참고문헌 .....	71
Abstract .....	74

## [ 표 차 례 ]

<표Ⅱ-1>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	11
<표Ⅱ-2>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현황 .....	12
<표Ⅱ-3> 한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	14
<표Ⅱ-4> 중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	16
<표Ⅱ-5> 한국의 대중국 연도별 품목별 수출입 현황 .....	19
<표Ⅲ-1>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대중국 경쟁국간의 RCA지수 분석표 .....	32
<표Ⅲ-2>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비교우위 분류기준 .....	34
<표Ⅲ-3>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대중국 경쟁국간의 TSI지수 분석표 .....	43

## [ 그림 차 례 ]

<그림 I> 연구의 전개과정 .....	3
-----------------------	---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 경제의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는 각 국가들의 상품·서비스·금융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범세계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세계경제는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GATT체제를 중심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세계적 후생을 증가 시켜왔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젠 GATT체제만으로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86년부터 UR협상을 통해 1994년 마라케쉬협정을 통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회원국의 관세가 낮아지고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무역의 자유화는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경제는 WTO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의 가속화와 FTA협정의 진전으로 중국경제는 13억 인구에도 불구하고 1978년 개혁 착수 이래 연평균 9%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구매력 기준 국내 총 생산규모가 일본을 초과하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편,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은 6,049억 달러, 수입은 5,352억 달러로 697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7년 기준 전체 수출은 2조 2,792억 달러, 수입은 1조 7,900억 달러로 4,891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어 세계 제2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했다<sup>1)</sup>.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 이후 한국의 제1의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무역 대상국 중 수출, 무역액, 투자, 무역수지 등의 여러 면에서 모두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국가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621억 달러이며 수입은 1,06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56억 달러를 기록하여 부동의 제1의 무역 상대국이다. 또한 중국의 무역 상대국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한국의 대 중국 10대 수출상품은 전자집적회로,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

1) KITA.net (한국무역협회 통계)



환식탄화수소,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 라디오 TV 등의 부분품,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 반도체소자, 비환식탄화수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시장에 한국이 수출하는 주요 품목(10대 수출상품)의 수출 통계추이에 따라 중국이 수입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10대 수출상품과 경쟁하는 4대 경쟁국과의 국제경쟁력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세계 RCA지수와 대중국 RCA지수 및 대세계 TSI지수와 대중국 TSI지수를 10대 수출 상품 경쟁국 지수와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의 2011년부터 대중국 주요 수출 상품에 대한 통계치를 추출하였으며, 그리고 중국무역의 통계치를 통하여 한국의 주요 10대 수출 상품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쟁국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경쟁력 분석을 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경쟁대상국의 무역 통계량은 UN Comtrade DB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한국의 주요 10대 품목은 HS code (4단위)로 하여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해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경쟁대상국을 한국을 포함하여 5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여 비교우위를 측정하여 국제 경쟁력의 추이와 무역 특화 정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포함해 연구의 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본 논문의 차별성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무역현황과 한국의 주요 10대 수출상품과 그에 따른 중국시장에 대한 5대 경쟁상대국의 현황을 제시 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세계 및 대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하고 경쟁상대국의 대한 대세계 및 대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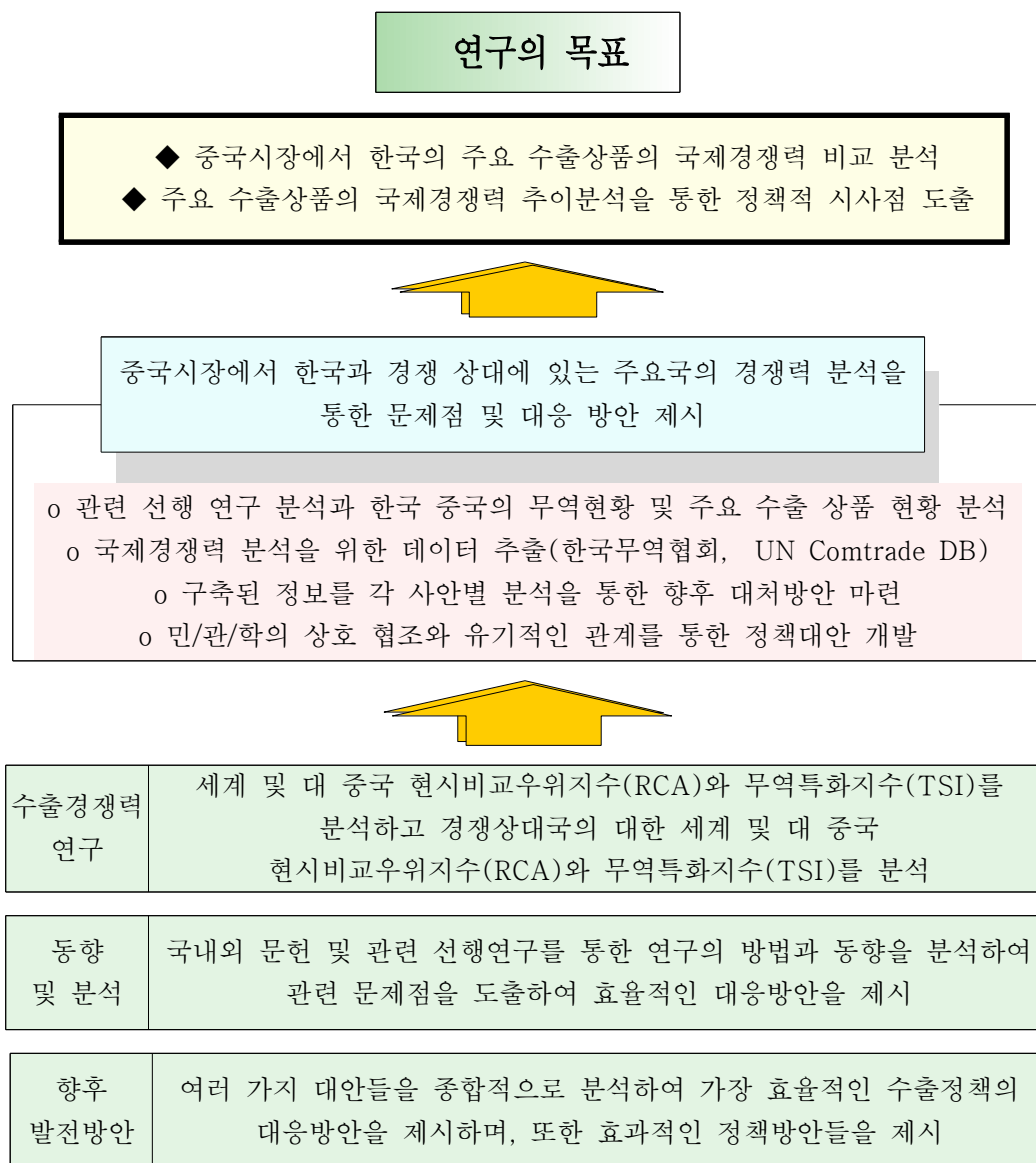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대중국 국제경쟁력 동태적 분석을 통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단위의 추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고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당연구의 한계점을 찾아보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3. 논문의 구성 체계

논문의 구성체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전개과정

## 제 2 장 선행연구 및 한중 무역규모

### 제 1절 선행연구의 검토

국제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도구로 사용한 주요 선행연구는 국가 간의 비교와 산업 간의 비교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도 점차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주요 산업을 보면 정보통신 관련 산업, 의료기기산업,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제조기업, 부품소재산업 등이 있다. 대상으로 삼았던 국가를 살펴보면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 사용된 분석지수는 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수출유사성(경합도)지수(ESI), 시장점유율(EMS), 산업내무역지수(IIT), 국별 비교우위지수(CAC) 등도 주요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지표를 활용한 국가 간 또는 산업 간의 경쟁력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 1. 의료기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선행 연구

먼저 의료기기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라공우<sup>2)</sup>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UN Comtrade 수출입 금액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개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HS code별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산출하여 국제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국제경쟁력을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해 serM모형에 SWOT분석을 결합한 serM-SWOT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후발 주자인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 품목과 무역특화 품목 수에서 수적으로 뒤지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많이 따라 잡히고 있다. 또한 이들 의료기기중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력, 인지도, 기술력 등이 매우 열세에 있는 것

2) 라공우, “한중 의료기기산업의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6, pp.177-198.

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국내 수요의 절반 이상인 62%를 수입에 의존하며, 고기술 고가장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중견기업 및 대기업육성, 영세성 탈피 및 수출기업화 추진, 산업기반으로서의 의료 전문인력 양성, 수출마케팅 강화 등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미화·이현훈<sup>3)</sup>은 UN Comtrade 수출입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HS2002 산업분류를 통한 36개 세부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여 비교우위 및 무역특화정도를 분석하였고, 또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의 이론에 근거하여 의료기기제품 수출 규모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총 상품 및 제조제품 수출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의료기기 제품의 수출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경제 블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윤소영<sup>4)</sup>(a)은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 대 중국 수출입 특화품목 동향”에서 對 중국 보건산업 품목별 수출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3년간 수출입 금액의 산술평균값으로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였다. 품목별 수출입금액이 전체 수출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특화산업 또는 수입특화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역특화지수(TSI)와 더불어 교역규모(수출입 일정 규모 이상)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윤소영<sup>5)</sup>(b)은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에서 보건산업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를 위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입 통계(HS코드 10단위의 보건산업 품목 679개 대상) 및 UNComtrade DB (HS코드 6단위의 보건산업 품목 284개 대상)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5개 지역에 대한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무역특화지수(TSI), 시장점유율(MS)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

3) 신미화·이현훈, “한중일 의료기기산업의 비교우위 및 무역패턴 분석”, 무역학회지, 36권 2호, 한국무역학회, 2011, pp.25-56.  
4) 윤소영(a),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 대중국 수출입특화품목 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 1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pp.1-8.  
5) 윤소영(b),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Vol. 1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pp.1-8.

였다.

이유아·정윤세<sup>6)</sup>는 중국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수출특화 품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국제경쟁력지수를 그룹화하고 연도별로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과 경쟁우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지속적으로 중국 의료기기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수출특화품목을 도출하고 발굴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 2. 자동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선행연구

자동차 관련 산업 경쟁력 선행연구를 보면, 먼저 김지용<sup>7)</sup>은 국제상품공통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을 활용하여 자동차부품 관련 품목들을 분류하였으며, 이 품목에 대한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시장으로의 상품 수출 집중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수인 수출편향지수(Index of Export Bias)와 상품 경쟁력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대표적인 지수인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도출하여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 미국시장 경쟁력 정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

심재희<sup>8)</sup>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하여 한국·미국·중국·독일·일본·프랑스 6개국 자동차산업의 인도시장에서의 수출성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품목별 비교에서는 한국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버스와 화물차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산업에 대한 국가별 비교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6개 국 중 중위

6) 이유아·정윤세,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pp.93-114.

7) 김지용, “국산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 수출 집중도 및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제7권 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pp.351-365.

8) 심재희, “주요국 자동차산업의 인도시장 수출성과 분석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pp.777-800.

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수출 발전 방안으로서 한국이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소형차종은 수익성이 높지 않으므로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중형차 이상의 다양한 차종에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며, 부품산업은 완성차업체와의 인도 현지 동반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의 이점을 활용하고 인도 로컬부품산업의 경쟁력 상승에 따른 현지 국내 부품산업의 위축 가능성 등의 약점을 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서량·황우·박형래<sup>9)</sup>는 한국시장에 대한 중국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비교우위 구조와 한국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산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중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 상태와 추세를 파악하고 중국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찾아내어 자동차 부품생산 강국인 한국의 우위 요인과 비교함으로써, 양국 간 자동차부품시장 구조의 차이를 해석하고 중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라공우<sup>10)</sup>는 미국시장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부품 경쟁력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의 UN Com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HS code(6단위) 8708품목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여 비교우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0년 동안의 경쟁력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의 경우 모두 현시비교우위(RCA)지수가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미국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시비교우위는 아직까지는 중국에 비해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군이 더 많지만, 중국은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활발한 R&D투자를 통하여 후발 주자로서 더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특화지수 분석에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수출특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의 수출특화가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필연적이며 그 경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재

9) 초서량, 황우, 박형래, “한·중 자동차 부품교역의 경쟁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4, pp.195-216.

10) 라공우, “미국시장에 대한 한·중 자동차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7, pp.257-275.

협상 시 국익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자동차 부품업체는 품질 경쟁력 확보, 우수한 전문 인력의 양성,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 3. 화장품 관련 산업의 경쟁력 선행연구

한승권·최장우<sup>11)</sup>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의 UN Comtrade 데이터와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도구로 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 경쟁력 변화를 동태적인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들은 점진적으로 비교우위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경쟁력 상승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 품목은 중국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교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이진배<sup>12)</sup>는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한국·중국·일본 3국의 화장품산업을 대상으로 각국의 구조적 특징과 경쟁력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5년으로 설정하고, 국제무역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여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요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중국 화장품 산업 역시 세계시장에 대하여 수출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큰 폭의 무역흑자 축소를 보이고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 살펴본 한국·중국·일본의 화장품산업에

11) 한승권·최장우,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對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pp.111-130.

12) 이진배, “한중일 화장품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경쟁력 변화 고찰”,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pp.745-760.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으며, 일본, 한국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은 세계시장에서의 강한 비교우위를 토대로 수출규모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TSI)에 따른 한국·중국·일본 3국의 경쟁력을 비교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되어 전 품목이 수출특화 구조로 전환된 반면에 중국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일본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특화 구조를 보였으나, 완만한 경쟁력 개선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임준형·송규상<sup>13)</sup>은 한국과 미국의 화장품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도구로는 한국무역협회자료에 의하여 2001-2010년 기간 동안에 도출된 TSI, RCA지수를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화장품제품의 경쟁력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제품은 미국에 비하여 무역 규모는 작지만 세계 전체와 비교하여 보면 수출경쟁력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2005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화장품제품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미국의 경쟁력은 하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비교우위에 있는 330420(눈 화장용 제품)호와 330430(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호, 330491(분말상의 것, 웨이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호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고, 330410(입술화장용 제품류)호, 330499(기타(기초화장용,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제품류, 기타))호, 330520(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호, 330530(헤어래커)호, 330590(헤어린스, 헤어크림, 기타)호등 이들 제품의 국제경쟁력 상승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출 전략과 수출국 다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에 국한된 수출시장을 북미와 유럽시장으로 확대해 가는 공격적 수출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박지혜·박철호<sup>14)</sup>는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있어서 중국의 부상은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향장품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향장품의 수출성장 추세는 한국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한국과 중국 향장품의 경쟁력을 비교하여 수출성장 전략에 대한

13) 임준형·송규상, “한국과 미국 화장품제품의 경쟁력 비교”, 한일경상논문집, 제74권, 한일경상학회, 2017, pp.129-153.

14) 박지혜·박철호, “한국과 중국 향장품의 수출경쟁력 비교를 통한 수출성장 전략”,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4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317-346.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비교를 위하여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이용하여 수출입 국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는 330499(기타(기초 화장용,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제품류, 기타))호, 330510(샴푸)호이며, 다음으로 330430(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호와 330590(기타(헤어린스, 헤어크림, 기타))호로 나타났다. 이러한 4개 품목을 한국 향장품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입지를 강화시키고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논문들은 주요 무역 상대국이나 수출 전체산업 또는 FTA 한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경쟁력 분석에서 HS 코드 4단위로 분류한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상위 수출품목 10개에 대하여 품목별로 각각 분석하는 것으로 국제경쟁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존 논문들의 분석방법과 주된 분석 품목은 비슷하지만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대세계 및 대중국 RCA지수와 TSI지수를 도출하고 중국시장에서 각 품목의 상위 경쟁국들의 RCA지수와 TSI지수도 국가별로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10개 품목들의 중국수입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 제 2절 한·중 무역 규모 현황

### 1.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수출은 2008년 4,220억 달러에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며 2018년에는 6,04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이한 것은 2009년 2015년 2016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시장의 침체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수입은 2008년 4,352억 달러에서 2009년에 3,230억 달러로 25% 하락하였고 그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4,364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16% 하락하였으나 2018년 5,35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8년 수지는 69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입에 있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시장의 침체 여파로 2009년

2015년 2016년에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II-1>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순번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2018년	604,859,657	5.4	535,202,428	11.9	69,657,229
2	2017년	573,694,421	15.8	478,478,296	17.8	95,216,125
3	2016년	495,425,940	-5.9	406,192,887	-6.9	89,233,053
4	2015년	526,756,503	-8.0	436,498,973	-16.9	90,257,530
5	2014년	572,664,607	2.3	525,514,506	1.9	47,150,101
6	2013년	559,632,434	2.1	515,585,515	-0.8	44,046,919
7	2012년	547,869,792	-1.3	519,584,473	-0.9	28,285,319
8	2011년	555,213,656	19.0	524,413,090	23.3	30,800,566
9	2010년	466,383,762	28.3	425,212,160	31.6	41,171,602
10	2009년	363,533,561	-13.9	323,084,521	-25.8	40,449,040
11	2008년	422,007,328	13.6	435,274,737	22.0	-13,267,409

자료:KITA.net (한국무역협회 통계) 참조.

## 2.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중국의 무역은 2010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출규모는 2008년 1조4,288억 달러에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며 2017년에는 2조2,79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규모는 2008년 1조1,314억 달러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며 2014년에 1조9,6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1조7,90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5년 중국의 수입은 전년 대비 18.4% 감소하였다.

중국의 수출입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2015년 2016년에는 하락하며 본격적으로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하였다.

<표 II-2>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순번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2017년	2,279,162,136	6.8	1,789,999,733	17.5	489,162,402
2	2016년	2,134,872,317	-6.4	1,522,886,366	-4.9	611,985,951
3	2015년	2,280,437,122	-2.7	1,601,598,427	-18.4	678,838,694
4	2014년	2,343,222,126	6.0	1,963,105,197	1.1	380,116,929
5	2013년	2,210,771,856	7.8	1,941,465,999	6.8	269,305,857
6	2012년	2,050,109,239	7.9	1,817,344,026	4.3	232,765,213
7	2011년	1,899,314,102	20.3	1,741,624,120	24.9	157,689,981
8	2010년	1,578,444,201	31.3	1,393,909,267	38.9	184,534,934
9	2009년	1,202,047,365	-15.9	1,003,892,748	-11.3	198,154,617
10	2008년	1,428,869,189	17.3	1,131,468,686	18.3	297,400,503

자료:KITA.net (한국무역협회 통계)

### 3. 한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9년 까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교역 규모와 비중이 있어 지속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3대 수출국(중국, 미국, 베트남)이고 3대 수입국(중국, 미국, 일본)이면서 3대 흑자국(중국, 베트남, 홍콩)이다. 한국은 수출 대상국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상위 3국에 대해 수출편중현상이 나타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201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42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807억 달러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수출액이 1,244억 달러로 감소하나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여 2018년에는 수출액 1,621억 달러, 수입액 1,06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수출규모 2위의 국가는 미국으로 2012년 582억 달러에서 증가세를 이어나가다 2015년과 2016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72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대중국 수출액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한국 수입규모 2위 국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일본이 차지하였으나 2018년 들어서는 미국이 588억 달러를 기록하며 546억 달러 규모의 일본과 순위가 바뀌었다.

특히 2015년은 국제 유가 하락, 중국 성장세 둔화, 글로벌 수요 부진 등에 직면하여 세계 수출시장이 유래 없는 감소세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수출부진을 경험하였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세계적인 유효수요 부족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되면서 세계 교역이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이 가운데 한국의 상위 교역대상국이 중국, 미국, 일본에서 베트남시장이 급부상하면서 3대 수출시장으로 등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2012년 159억 달러에서 2018년 48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출금액 및 비중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베트남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FTA발효, 한류의 영향 등을 들 수 있겠다. 향후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넓은 소비시장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표 II -3> 한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순 번	국가명	2012년			2013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547,869,792	519,584,473	28,285,319	559,632,434	515,585,515	44,046,919
1	중국	134,322,564	80,784,595	53,537,969	145,869,498	83,052,877	62,816,621
2	미국	58,524,559	43,340,962	15,183,597	62,052,488	41,511,916	20,540,572
3	일본	38,796,057	64,363,080	-25,567,023	34,662,290	60,029,355	-25,367,065
4	홍콩	32,606,189	2,058,419	30,547,770	27,756,308	1,929,242	25,827,066
5	싱가포르	22,887,919	9,676,408	13,211,511	22,289,028	10,369,435	11,919,593
6	베트남	15,945,975	5,719,246	10,226,729	21,087,582	7,175,193	13,912,389
7	대만	14,814,856	14,011,960	802,896	15,699,099	14,632,594	1,066,505
8	인도네시아	13,955,030	15,676,272	-1,721,242	11,568,178	13,189,998	-1,621,820
9	인도	11,922,037	6,920,826	5,001,211	11,375,792	6,180,172	5,195,620
10	러시아	11,097,138	11,354,318	-257,180	11,149,103	11,495,500	-346,397
순 번	국가명	2014년			2015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572,664,607	525,514,506	47,150,101	526,756,503	436,498,973	90,257,530
1	중국	145,287,701	90,082,226	55,205,475	137,123,934	90,250,275	46,873,659
2	미국	70,284,872	45,283,254	25,001,618	69,832,103	44,024,430	25,807,673
3	홍콩	27,256,402	1,749,889	25,506,513	30,418,178	1,493,026	28,925,152
4	베트남	22,351,690	7,990,325	14,361,365	27,770,750	9,804,831	17,965,919
5	일본	32,183,788	53,768,313	-21,584,525	25,576,507	45,853,834	-20,277,327
6	싱가포르	23,749,882	11,303,182	12,446,700	15,011,164	7,942,129	7,069,035
7	인도	12,782,490	5,274,668	7,507,822	12,029,587	4,240,565	7,789,022
8	대만	15,077,398	15,689,769	-612,371	12,004,264	16,653,850	-4,649,586
9	멕시코	10,846,018	3,268,495	7,577,523	10,891,938	3,464,245	7,427,693
10	호주	10,282,512	20,413,019	-10,130,507	10,830,635	16,437,806	-5,607,171

순번	국가명	2016년			2017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495,425,940	406,192,887	89,233,053	573,694,421	478,478,296	95,216,125
1	중국	124,432,941	86,980,135	37,452,806	142,120,000	97,860,114	44,259,886
2	미국	66,462,312	43,215,929	23,246,383	68,609,728	50,749,363	17,860,365
3	베트남	32,630,457	12,495,154	20,135,303	47,753,839	16,176,992	31,576,847
4	홍콩	32,782,449	1,614,845	31,167,604	39,112,281	1,879,331	37,232,950
5	일본	24,355,036	47,466,592	-23,111,556	26,816,141	55,124,725	-28,308,584
6	호주	7,500,743	15,175,870	-7,675,127	19,861,647	19,159,711	701,936
7	인도	11,596,286	4,189,284	7,407,002	15,055,543	4,947,847	10,107,696
8	대만	12,220,455	16,403,201	-4,182,746	14,898,398	18,072,988	-3,174,590
9	싱가포르	12,458,894	6,806,348	5,652,546	11,651,939	8,904,693	2,747,246
10	멕시코	9,720,804	3,695,371	6,025,433	10,932,591	4,407,479	6,525,112
순번	국가명	2018년			2019년(1월)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604,859,657	535,202,428	69,657,229	46,325,216	45,031,298	1,293,918
1	중국	162,125,055	106,488,592	55,636,463	10,818,275	10,326,542	491,733
2	미국	72,719,932	58,868,313	13,851,619	6,206,237	5,278,540	927,697
3	베트남	48,622,098	19,643,385	28,978,713	4,026,720	1,964,978	2,061,742
4	일본	30,528,580	54,603,749	-24,075,169	2,609,963	4,045,538	-1,435,575
5	홍콩	45,996,441	1,997,322	43,999,119	2,217,247	155,255	2,061,992
6	싱가포르	11,782,182	7,974,345	3,807,837	1,513,088	580,789	932,299
7	인도	15,606,221	5,884,707	9,721,514	1,429,606	463,577	966,029
8	대만	20,783,511	16,738,374	4,045,137	1,279,306	1,329,920	-50,614
9	멕시코	11,458,233	5,090,068	6,368,165	1,104,286	673,921	430,365
10	말레이시아	8,993,879	10,205,684	-1,211,805	931,931	896,961	34,970

자료:KITA.net (한국무역협회 통계)

#### 4. 중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중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그 뒤를 이어 홍콩, 일본, 한국의 순서이다. 중국의 3대 수입국은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 미국 수출금액은 2014년 3,960억 달러, 2015년 4,100억 달러, 2016년 3,886억 달러, 2017년 4,317억 달러를 나타낸다. 중국의 2위 수출국은 홍콩이며 2014년에 3,609억 달러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2,808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10대 무역국으로서 규모와 비중이 있어 지속적으로 4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수출국 순위 4위, 수입국 순위는 1위)

중국의 대 한국 수입액 규모는 2014년 1,902억 달러, 2015년 1,742억 달러, 2016년 1,587억 달러, 2017년 1,772억 달러로 2015년 2016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17년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2014년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표 II -4> 중국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현황

(단위: 천달러,%)

순번	국가명	2014년			2015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2,343,222,126.0	1,963,105,197.0	380,116,929.0	2,280,437,122.0	1,601,598,427.0	678,838,694.0
1	미국	396,063,144.0	153,130,796.0	242,932,348.0	410,017,420.0	143,982,895.0	266,034,525.0
2	홍콩	360,947,138.0	9,237,139.0	351,709,999.0	332,536,594.0	8,156,536.0	324,380,058.0
3	일본	149,451,720.0	162,685,635.0	-13,233,915.0	135,897,055.0	142,715,663.0	-6,818,609.0
4	한국	100,401,646.0	190,286,020.0	-89,884,375.0	101,428,832.0	174,288,626.0	-72,859,794.0
5	독일	72,730,920.0	104,776,262.0	-32,045,343.0	69,203,671.0	87,470,109.0	-18,266,439.0
6	베트남	63,617,520.0	19,927,781.0	43,689,739.0	66,372,271.0	23,796,605.0	42,575,666.0
7	영국	57,132,740.0	23,550,466.0	33,582,274.0	59,663,882.0	18,880,719.0	40,783,164.0
8	네덜란드	64,923,313.0	9,368,526.0	55,554,787.0	59,653,973.0	8,805,342.0	50,848,631.0
9	인도	54,237,234.0	16,412,573.0	37,824,661.0	58,259,172.0	13,394,903.0	44,864,270.0
10	싱가포르	48,706,653.0	30,534,541.0	18,172,113.0	53,147,735.0	26,021,687.0	27,126,048.0

순 번	국가명	2016년			2017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2,134,872,317.0	1,522,886,366.0	611,985,951.0	2,279,162,136.0	1,789,999,733.0	489,162,402.0
1	미국	388,616,654.0	132,393,591.0	256,223,063.0	431,782,808.0	149,660,992.0	282,121,816.0
2	홍콩	292,356,635.0	6,376,164.0	285,980,470.0	280,877,268.0	6,481,483.0	274,395,785.0
3	일본	129,505,031.0	145,237,873.0	-15,732,842.0	137,090,927.0	164,999,696.0	-27,908,769.0
4	한국	95,746,604.0	158,761,510.0	-63,014,906.0	102,938,862.0	177,268,669.0	-74,329,807.0
5	베트남	60,909,701.0	27,251,471.0	33,658,230.0	71,642,392.0	40,474,554.0	31,167,838.0
6	독일	66,000,023.0	86,113,043.0	-20,113,020.0	71,336,182.0	96,578,204.0	-25,242,022.0
7	인도	59,427,574.0	11,748,143.0	47,679,431.0	68,096,556.0	16,342,448.0	51,754,108.0
8	네덜란드	58,030,699.0	9,737,901.0	48,292,799.0	67,532,795.0	11,085,307.0	56,447,488.0
9	영국	56,592,082.0	18,602,632.0	37,989,450.0	57,225,200.0	22,125,730.0	35,099,471.0
10	싱가포르	47,417,408.0	23,719,034.0	23,698,374.0	46,128,649.0	29,441,154.0	16,687,494.0

자료:KITA.net (한국무역협회 통계)

## 5. 한국의 대중국 연도별 품목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을 연도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2년 상위 10대 수출 품목은 ①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 ②전자직접회로(8542), ③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 ④환식탄화수소(2902), ⑤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 ⑥ 전기식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8531), ⑦전화기 및 팩시밀리 전송시스템(8517), ⑧반도체소자(8541), ⑨비환식탄화수소(2901), ⑩그 밖의 전기기기(8543)이다.

2014년 10대 수출품목에는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와 기기 등(8538)과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등의 부분품(8538)의 2개 품목이 새롭게 10위 안에 진입하였고, 비환식탄화수소(2901)와 그 밖의 전기기기(8543)품목이 10대 품목 밖으로 밀려났다. 2016년에는 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과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이 10대 품목 안으로 들어왔으며, 2017년 10대 품목에는 ①전자직접회로(8542), ②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 ③환식탄화수소(2902), ④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 ⑤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 ⑥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 ⑦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 ⑧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 ⑨반도체소자(8541), ⑩비환식탄화수소(2901)가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의 총 수출액이 대중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10대 품목의 수출 합계는 676억 달러로 전체 수출 1,343억 달러의 50.34%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은 744억 달러로 총수출 1,458억 달러의 51.03%를, 2014년은 689억 달러로 총수출 1,452억 달러의 47.47%, 2015년은 709억 달러로 총수출 1,371억 달러의 51.73%, 2016년은 566억 달러로 총수출 1,244억 달러의 45.50%를, 2017년에는 7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총수출 1,421억 달러의 53.66%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대중국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5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10대 품목이 중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10대 품목 중에서도 수출 최상위 3대 품목은 전자직접회로(8542), 액정디바이스 및 레이저 기기(9013), 그리고 환식탄화수소(2902)로 집계되었다. 전자직접회로(8542) 품목의 2012년 수출액은 137억 달러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7년에는 3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자직접회로(8542) 품목의 수입역시 수출과 동일한 추이를 보였으며 무역수지는 2012년 99억 달러에서 2017년 249억 달러로 개선되었다.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은 2012년 197억 달러 수출에서 2017년 97억 달러를 기록하여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환식탄화수소(2902) 품목은 2012년 52억 달러 수출에서 2017년 8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II -5> 한국의 대중국 연도별 품목별 수출입현황

(단위: 천달러,%)

순 번	코드	품목명	2012년			2013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134,322,564	80,728,305	53,594,258	145,869,498	82,984,629	62,884,869
1	8542	전자집적회로	13,797,200	3,849,362	9,947,837	17,801,916	4,138,298	13,663,618
2	9013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	19,787,181	2,063,461	17,733,719	17,636,358	1,656,028	15,980,330
3	2902	환식탄화수소	5,454,309	171,552	5,282,756	7,390,243	131,018	7,259,225
4	2710	석유 및 역청유 (원유를 제외)	8,978,229	244,144	8,734,084	7,100,728	492,127	6,608,601
5	8531	전기식음향 이나 시각 신호용기기	3,917,900	1,174,798	2,743,102	5,726,454	1,059,063	4,667,391
6	8708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	4,112,566	1,138,766	2,973,799	5,177,497	1,244,471	3,933,026
7	8517	전화기 및 팩시밀리·전송시스템	3,447,548	3,177,040	270,507	4,544,191	3,570,891	973,300
8	2901	비환식탄화수소	2,889,300	79,457	2,809,843	3,140,271	18,191	3,122,080
9	8543	그밖의 전기기기	2,085,569	880,467	1,205,102	3,006,214	1,197,980	1,808,234
10	8541	반도체소자	3,161,564	1,868,348	1,293,215	2,918,313	1,956,284	962,029

순번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145,287,701	90,008,093	55,279,608	137,123,934	90,181,841	46,942,093
1	8542	전자집적회로	22,063,738	5,428,053	16,635,685	24,269,982	8,649,224	15,620,758
2	9013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	16,282,462	2,001,286	14,281,175	15,308,220	2,179,440	13,128,780
3	2902	환식탄화수소	7,588,054	54,061	7,533,993	6,354,724	88,311	6,266,413
4	8517	전화기 및 팩시밀리·전송시스템	5,808,517	7,199,165	-1,390,648	6,230,580	8,472,179	-2,241,599
5	8708	자동차부품과 부속품	5,632,829	1,084,292	4,548,537	5,409,659	1,039,861	4,369,798
6	8531	전기식음향 이나 시각 신호용기기	4,412,518	884,585	3,527,932	4,336,251	617,578	3,718,673
7	2710	석유 및 역청유 (원유를 제외)	5,513,185	295,266	5,217,918	3,310,854	77,622	3,233,232
8	8486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	2,095,995	279,667	1,816,327	2,756,358	185,582	2,570,776
9	8538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등의 부분품	1,960,702	326,143	1,634,558	2,735,085	479,469	2,255,616
10	8541	반도체소자	2,572,194	2,064,395	507,798	2,225,061	1,896,602	328,459
순번	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124,432,941	86,897,536	37,535,404	142,120,000	97,778,843	44,341,157
1	8542	전자집적회로	21,034,096	8,374,687	12,659,408	35,188,042	10,210,686	24,977,356
2	9013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	12,392,384	1,502,046	10,890,337	9,753,465	1,934,960	7,818,505
3	2902	환식탄화수소	6,422,780	48,202	6,374,578	8,203,799	93,236	8,110,563
4	2710	석유 및 역청유 (원유를 제외)	3,821,206	139,462	3,681,743	5,270,548	127,068	5,143,480
5	8529	라디오 TV 등의 부분품	1,786,447	335,278	1,451,168	3,763,862	699,436	3,064,426
6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	7,799	24,727	-16,928	3,350,596	60,236	3,290,360
7	8486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	2,389,774	105,943	2,283,831	3,116,176	154,520	2,961,656
8	8708	자동차부품과 부속품	4,745,759	1,064,663	3,681,096	2,750,790	1,108,612	1,642,178
9	8541	반도체소자	2,121,398	1,774,524	346,874	2,485,619	1,974,937	510,682
10	2901	비환식탄화수소	1,891,079	6,172	1,884,907	2,375,255	19,137	2,356,118

자료:KITA.net (한국무역협회 통계)

### 제 3 장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의 국제경쟁력 비교

#### 제 1절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과 경쟁 대상국의 RCA 분석

##### 1. 현시비교우위(RCA)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는 무역통계를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국제경쟁력 지수로 세간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sup>15)</sup> (Balassa, 1965). RCA지수는 일국의 특정수출품이 글로벌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나 동시에 국별 시장 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하여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의 경쟁력이 비교 가능하다.

이 지수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제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제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제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데 쓰이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 된다<sup>16)</sup>.

$$RCA = \frac{X_{ij}}{X_{wj}} / \frac{X_i}{X_w} \quad (1)$$

단, 여기서  $X_{ij}$ 은 i 국의 j 품목의 수출액,  $X_i$ 은 I 국의 총수출액,  $X_{wj}$ 은 전세계의 j 품목의 총수출액,  $X_w$ 는 전세계의 총 수출액을 각각 의미한다.

위의 식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시장에서의 일국의 특정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RCA가 1보다 크다는 것은 i 국의 j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그 국가의 전상품의 세계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i 국의 j 상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세계전체의 평균 수출경쟁력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sup>17)</sup>.

본 연구에서는 UN Comtrade DB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단위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2017년 순위 기준)의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 대한

15) Balassa, B., 1977,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evisited: An Analysis of Relative Export Shares of the Industrial Countries, 1953-1971",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45: 327-344.

16) 신미화이현훈, "한중일 의료기기산업의 비교우위 및 무역패턴 분석", 무역학회지 36권 2호, 한국무역학회. 2011, pp. 31-32.

17) 신미화이현훈, "전계논문" pp.31-32.

RCA 지수와 중국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경쟁대상국의 RCA지수를 산출하고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큰 경우 비교우위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교열위로 측정하여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 2.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대세계 및 대중국 경쟁력 비교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인 ①전자직접회로(8542), ②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 ③환식탄화수소(2902), ④석유 및 역청유(2710), ⑤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 ⑥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 ⑦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 ⑧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 ⑨반도체소자(8541), ⑩비환식탄화수소(2901)에 대하여 한국의 대세계 및 대중국 RCA지수와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해당품목의 경쟁국 상위 4개 국가들의 RCA지수를 2011년부터 2년 단위로 하여 2017년까지 산출하였다.

중국시장에서 각 품목별 국가 간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직접회로(8542)품목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의 총 수입은 2,59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 상위 5개국은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80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1.1%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56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5.3%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에서 중국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대만과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 외 말레이시아로부터는 239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는 138억 달러, 미국으로부터는 104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입 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만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RCA지수는 2011년에 7.80을, 2017년에 7.88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시장에서의 RCA지수는 2011년에 1.54를, 2017년에 2.09를 나타내며 경쟁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강한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RCA지수가 2011년 3.09에서 2017년

4.06으로 증가하여 경쟁력이 개선되어짐을 보여준다. 중국시장에서도 2011년 RCA지수는 0.88로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에 RCA지수가 1.03으로 비교우위 품목으로 전환되었고 2017년에는 RCA지수가 1.75를 나타내며 점차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시장에서의 RCA지수 변화는 2011년 5.19에서 2017년 4.1로, 중국시장에서의 RCA지수 변화는 2011년 2.72에서 2017년 1.85로 다소 감소하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시장에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은 세계시장에 대하여는 2011년 RCA지수는 1.68, 2017년 RCA지수는 1.03으로 비교우위에 있으나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 RCA지수가 0.62에서 2017년에 0.37로 감소하면서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2011년에는 RCA지수가 1.04로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2013년에 0.81을 기록하며 비교열위로 전환되었으며 그 이후 RCA지수가 계속 감소하여 비교열위가 더 커지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1보다 작은 RCA값을 나타내어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쟁력도 더욱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에 대한 총 수입은 371억 달러이며 수입 상위 5개국은 대만,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이다. 이 가운데 대만에서의 수입은 108억 달러를, 한국에서의 수입은 1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대만과 한국에 대하여 높은 수입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뒤를 이어 일본으로부터 50억 달러, 태국으로부터 16억 달러, 베트남으로부터 14억 달러의 수입 수요를 보이고 있다.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에서 중국 수입시장 점유 5개국의 국가별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만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아주 높은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 10.4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 5.56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 5.4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3.33을 기록하여 경쟁력이 2011년에 비해서는 다소 약화되었지만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로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 9.23에서 2017년 5.58로,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 4.79에서 2017년 3.4로 점차 감소하여 대만과 동일한 추이를 보이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세계시장에 대하여 2011년 RCA지수는 1.94, 2017년 RCA지수는 1.76을 나타내며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에는 RCA지수가 0.76으로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부터 RCA지수가 1.13을 나타내며 비교우위로 전환되어 2017년에 RCA지수는 1.5로 경쟁력이 다소 개선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태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2013년까지는 1보다 작은 RCA값을 나타내며 비교열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점차 RCA지수가 개선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 대세계 RCA지수는 1.31, 대중국 RCA지수는 1.53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RCA지수 0을 기록하며 전혀 경쟁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2017년에 대세계 RCA지수가 3.1을, 대중국 RCA지수가 1.24를 기록하며 비교우위를 지니게 되어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의 수출국가로 부상하였다.

### 3) 환식탄화수소(2902)품목

환식탄화수소(2902)품목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중국의 총 수입액은 197억 달러이다. 이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2억 달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9억 달러,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18억 달러,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은 13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은 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환식탄화수소(2902)품목에서 중국 수입시장의 상위 5개국 즉,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1보다 큰 RCA지수를 나타내어 이들 5개국 모두가 환식탄화수소(2902)품목 수출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강한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쟁력도 더욱 개선되고 있다.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 4.84에서 2017년 6.86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 4.07에서 2017년 5.35로 증가하면서 높은 경

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에 2.99를, 2017년에 2.88을 기록하였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에 2.21을, 2017년에는 2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 역시 연도별로 일본과 비슷한 RCA값의 변동추이를 보이며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가 2011년 1.84에서 2017년 3.34로 증가하였고,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 또한 2011년 1.67에서 2017년 2.19로 개선되면서 경쟁력도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지속하여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 1.86에서 2015년 3.64로 증가하면서 우위가 더욱 개선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시장에서 수입 점유 순위는 5위이나 중국시장내의 경쟁력은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13.71을 기록하고 있다.

#### 4)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품목

2017년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품목에 대한 중국의 총수입은 14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은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일본으로 집계되었다. 국가별 수입비중을 보면 한국으로부터 45억 달러, 싱가포르로부터 36억 달러, 러시아로부터 8억 달러, 말레이시아로부터 7억 달러, 일본으로부터 6억 달러 규모로 수입이 이루어졌다. 이 중 한국과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의 국가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4국이 모두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7년 기준으로 1.65를,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4.71을 기록하며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세계시장보다는 중국시장에서의 우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높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지속하여 3이상의 RCA값을 기록하며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RCA지수는



2011년에 9.01, 2017년에 11.97을 기록하면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또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하여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RCA지수는 2011년 3.44에서 2017년 4.58로 증가하였고 이는 경쟁상대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값으로 경쟁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시장에서도 RCA지수는 2011년에 7을, 2017년에 8.87을 기록하면서 싱가포르와 함께 높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1년에는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에 비교우위로 전환되었고 이후 2017년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중국시장에서의 비교열위는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다.

#### 5)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품목

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에 대한 중국의 총 수입액은 2017년을 기준으로 12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 상위 5개국은 한국, 베트남, 일본, 대만,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수입이 3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베트남에서 27억 달러, 일본에서 10억 달러의 수입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의 수입에서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 외에 대만으로부터는 6억 달러를, 필리핀으로부터는 3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이 들 5개 국가의 경쟁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한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1년 대 중국 RCA지수는 2.37에서 2017년 3.98로 증가하여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은 더욱 개선되고 있다. 베트남은 이 품목의 중국시장 수입점유 2위 국가이지만 국제경쟁력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비교열위에 머무르고 있어 좋지 못하다. 세계시장에서의 RCA지수는 2011년에 0.43, 2017년에 0.87을 기록하여 비교열위에 있으며, 중국시장에서도 RCA지수가 2011년에 0.36을, 2017년에 0.38을 나타내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비교열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세계시장에서

의 열위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2011년 대세계 RCA 지수가 1.78에서 2017년 1.03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중국 RCA지수 역시 2011년 2.21에서 2017년 1.07로 다소 감소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만은 2011년 대세계 RCA지수가 1.24에서 2017년 6.46으로 증가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국시장 내에서는 2011년 RCA지수는 0.91 그리고 2013년에는 0.63으로 2013년까지는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5년에 RCA지수가 3.27, 2017년에는 5.52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중국시장 내의 경쟁력도 매우 크게 강화되었다. 필리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 2015년 대비 대세계 RCA지수가 2.31만큼 감소한 0.7을 기록하면서 비교열위국가로 전환되었다. 중국시장에서도 RCA지수는 2011년에 0.82, 2013년에 1.48, 2015년에 1.51, 2017년에 0.85를 나타내면서 2011년에는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과 2015년에 비교우위로 개선되었다가 2017년에 다시 비교열위로 전환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 6)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품목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품목에 대한 중국의 총수입은 2017년을 기준으로 19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입 상위 5개국은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필리핀이다. 각 국가별 수입액은 일본으로부터 7억 달러, 말레이시아로부터 2억 달러, 대만으로부터 1억 8천만 달러, 한국으로부터 7천8백만 달러, 필리핀으로부터 5천4백만 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품목에서 국가별 경쟁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일본은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품목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2011년 RCA지수가 4.48에서 2017년에 1.67로 감소하여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에 RCA지수는 0.92로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에 2.79로 비교우위로 전환되며 경쟁력을 갖추었다가 2015년에 1.6, 2017년에 1.45를 기록하면서 비교우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력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1년에 대세계 RCA지수는 0.45에서 2017년에는 0.17을 나타내

있고, 2011년 대중국 RCA지수는 0.23에서 2017년에는 0.15를 기록하면서 세계시장이나 중국시장 모두에서 줄곧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열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만은 세계시장에서 2015년까지는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2017년 RCA지수가 1보다 작은 0.76으로 기록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하여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2011년에 세계시장에 대하여 비교우위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로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1보다 작은 RCA값으로 비교열위가 지속되다가 2017년에 대세계 RCA지수가 15.84로, 대중국 RCA지수가 22.57로 2015년 대비(2015년 대세계 RCA지수 : 0.3, 2015년 대중국 RCA지수 : 0.09)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여 경쟁력이 괄목할 만큼 크게 개선되었다. 필리핀은 2015년에 세계시장에서는 RCA지수가 2.41로 비교우위를 나타내었으나 그 외에는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비교열위로 경쟁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7)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품목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품목에 대한 중국의 총 수입은 2017년을 기준으로 19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 상위 5개국은 일본, 한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이다. 각 국가별 수입액은 일본으로부터 69억 달러, 한국으로부터 37억 달러, 미국으로부터 26억 달러, 대만으로부터 20억 달러, 싱가포르로부터 1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일본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에 있으며 특히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 RCA지수가 3.21에서 2017년에는 4.63으로 개선되면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 RCA지수가 0.93으로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에 RCA지수가 3.1로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가 그 이후 약간의 감소세는 있지만 2017년까지 RCA지수 2.06을 기록하면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큰 변화 없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43을,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1.86을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2011년에는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부터 비교우위로 전환되면서 2017년까지 비교우위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1.89를,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1.62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높은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RCA지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5.24를,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68을 기록하고 있다.

#### 8)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품목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품목에서 중국의 총 수입액은 2017년에 27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비중이 큰 국가는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순이다. 국가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86억 달러, 일본에서 71억 달러, 한국에서 27억 달러, 미국에서 18억 달러 그리고 프랑스에서 6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해당품목에서 이 들 5개국의 경쟁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독일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RCA지수는 2011년 5.71, 2013년 7.98, 2015년 7.34, 2017년 6.68을 나타내며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월등하게 높은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고르게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시장에서의 RCA지수는 2017년 2.14로 경쟁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장에서는 2017년 RCA지수가 3.71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세계 RCA지수는 2011년 2.04에서 2017년 1.47로 감소하였고, 대중국 RCA지수 역시 2011년 2.53에서 2017년 1.32로 감소하였다.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비슷한 수준의 비교우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는 2015년까지는 1보다 작은 RCA값으로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7년에 RCA지수가 1.22로 개선되면서 비교우위를 지니게 되었다. 프랑스는 세계시장과 중국시장

에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나 경쟁력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대세계 RCA지수는 2011년 1.71에서 2017년 1.28로 다소 감소하였고, 대중국 RCA지수도 2011년 2.62에서 2017년 1.24로 하락하였다.

#### 9)반도체소자(8541)품목

중국의 반도체소자(8541)품목에 대한 총 수입액은 2017년 기준으로 280억 달러이며 수입 상위 5개 국가는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이다. 총 수입 280억 달러 중에서 국가별로는 대만으로부터 47억 달러, 일본으로부터 42억 달러, 말레이시아로부터 27억 달러, 한국으로부터 25억 달러, 필리핀으로부터 9억 달러 규모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국시장 수입점유 상위 5개국들의 반도체소자(8541)품목에서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만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 4.66에서 2017년 3.51로,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 3.12에서 2017년 2.99로 소폭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에 2.1을, 2017년에 1.96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2011년에 1.32를, 2017년에 1.12를 기록하면서 약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큰 변동 폭 없이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시장에 대하여 RCA지수가 2011년 4.64에서 2017년에는 6.02로 증가하여 높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쟁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어 말레이시아는 세계시장에서 반도체소자(8541)품목의 수출경쟁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시장에서도 2011년 RCA지수가 1.27, 2017년 RCA지수가 1.67로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1.47 2013년 1.33, 2015년 0.93, 2017년 1.14를 기록하고 있어 2015년에 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가 2017년 비교우위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세계시장에서 아주 높은 경쟁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가 2011년 7.46에서 2017년 4.03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말레이시아에 이어 두 번

제로 높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는 2015년을 제외하고는 RCA지수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비교우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10)비환식탄화수소(2901)품목

중국의 비환식탄화수소(2901)품목에 대한 총 수입액은 2017년 기준으로 61억 달러이며 수입 상위 5개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이다. 국가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한국으로부터 24억 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총 수입의 39%에 해당한다. 뒤를 이어 일본으로부터 12억 달러, 대만으로부터 7억 달러를, 싱가포르와 미국으로부터 각각 2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품목에서 이들 중국 수입시장 점유 상위 5개국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은 2011년부터 2017년 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지속하여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세계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3.98, 중국시장에 대한 RCA지수는 4.96으로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높은 RCA값을 기록하며 확실한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2011년도 대비 RCA값이 큰 폭으로 상승(대세계 RCA지수: 1.43→3, 대중국 RCA지수: 1.88→4.3)하여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이후에는 2013년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비교우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만 또한 2011년부터 2017년 까지 지속적으로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은 대세계 RCA지수가 3.22를, 대중국 RCA지수가 3.78을 나타내며 경쟁력이 가장 강화되었던 해였다. 싱가포르는 세계시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 까지 1보다 약간 큰 RCA값으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1보다 작은 RCA값을 나타내내며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1보다 작은 RCA값을 기록하며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17년에 세계시장에 대하여는 RCA지수가 1.27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비교우위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중국시장에서는 우위가 개선되지 못하여 여전히 비교열위에 머무르고 있다.

<표 III-1>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대중국 경쟁국간의 RCA 지수 분석표

8542(전자직접회로) 품목_1순위										
구분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7.80	1.54	3.09	0.88	5.19	2.72	1.68	0.62	1.04	0.39
2013	7.65	1.34	3.13	1.03	4.53	2.3	1.4	0.47	0.81	0.27
2015	7.91	1.49	3.16	1.29	4.34	2.07	1.21	0.41	0.71	0.31
2017	7.88	2.09	4.06	1.75	4.1	1.85	1.03	0.37	0.67	0.29
9013(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 품목_2순위										
구분	대만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10.41	5.44	9.23	4.79	1.94	0.76	0.21	0.09	0.07	0.04
2013	9.74	5.33	8.47	4.25	1.74	1.13	0.37	0.2	0	0
2015	7.13	4.11	7.76	4.05	1.8	1.35	1.31	1.53	0	0
2017	5.56	3.33	5.84	3.4	1.76	1.5	-	-	3.1	1.24
2902(환식탄화수소) 품목_3순위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4.84	4.07	2.99	2.21	1.56	1.87	1.84	1.67	1.86	13.39
2013	5.49	4.14	3.92	2.94	3.44	3.40	2.18	1.3	1.69	10.03
2015	6.61	4.72	3.58	2.55	2.93	2.46	3.09	1.76	3.64	13.71
2017	6.86	5.35	2.88	2	2.51	1.87	3.34	2.19	-	-
2710(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 품목_4순위										
구분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1.76	3.96	3.76	9.01	3.44	7.00	0.93	0.62	0.34	0.58
2013	1.65	2.96	3.06	6.34	3.76	7.07	1.54	3.36	0.37	0.66
2015	1.6	2.85	3.33	7.94	5.39	10.69	1.46	1.56	0.42	0.70
2017	1.65	4.71	3.46	11.97	4.58	8.87	1.72	2.79	0.36	0.75
8529(라디오 TV등의 부분품) 품목_5순위										
구분	한국		베트남		일본		대만		필리핀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4.26	2.37	0.43	0.36	1.78	2.21	1.24	0.91	1.71	0.82
2013	4.51	3.31	0.31	0.16	1.74	2.32	1.13	0.63	1.57	1.48
2015	3.55	2.81	0.71	0.42	1.47	2.08	3.31	3.27	3.01	1.51
2017	4.05	3.98	0.87	0.38	1.03	1.07	6.46	5.52	0.7	0.85
8548(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 품목_6순위										
구분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필리핀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4.48	0.92	0.45	0.23	1.86	0.37	1.11	0.59	-	-
2013	5.11	2.79	0.23	0.39	1.99	0.87	0.57	0.27	0.45	0
2015	4.15	1.6	0.26	0.21	1.36	0.36	0.3	0.09	2.41	0.02
2017	1.67	1.45	0.17	0.15	0.76	0.43	15.84	22.57	0.51	0.48

8486(반도체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 품목_7순위										
구분	일본		한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7.67	3.21	1.47	0.93	2.07	1.35	0.97	0.56	2.80	1.55
2013	7.75	5.14	2.55	3.1	2.52	1.96	1.68	1.14	3.88	3.44
2015	6.96	4.31	2.86	2.7	2.59	1.97	1.47	1.11	4.11	2.62
2017	6.99	4.63	2.57	2.06	2.43	1.86	1.89	1.62	5.24	2.68
8708(부분품과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 한정한다)) 품목_8순위										
구분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1.89	5.71	2.39	4.23	2.04	2.53	1.35	0.53	1.71	2.62
2013	1.99	7.98	2.54	4.48	2.19	2.86	1.4	0.94	1.57	2.66
2015	1.85	7.34	2.1	3.49	2	2.84	1.34	0.94	1.34	1.82
2017	1.87	6.68	2.14	3.71	1.47	1.32	1.27	1.22	1.28	1.24
8541(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이와유사한반도체디바이스,광광성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모듈·패널에조립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포함한다),발광다이오드,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품목_9순위										
구분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4.66	3.12	2.1	1.32	4.64	1.27	1.36	1.47	7.46	0.78
2013	5.00	2.93	2.3	1.4	5.99	1.37	1.82	1.33	8.13	0.64
2015	4.37	2.76	1.97	1.04	5.88	1.01	1.42	0.93	7.57	1.01
2017	3.51	2.29	1.96	1.12	6.02	1.67	1.66	1.14	4.03	0.96
2901(비환식탄화수소) 품목_10순위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3.47	5.76	1.43	1.88	2.43	3.11	1.06	0.23	0.82	0.23
2013	4.51	6.19	3	4.3	2.61	2.49	1	0.14	0.75	0.14
2015	3.43	4.81	2.84	4.42	3.22	3.78	1.43	0.19	0.88	0.19
2017	3.98	4.96	1.75	2.54	2.47	2.39	1.75	0.39	1.27	0.39

\*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RCA지수가 1보다 큰 블록으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나타낸다.

## 제 2절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과 경쟁 대상국의 TSI 분석

### 1.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는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수출액에



대한 수입액의 차이인 순수출액 개념을 바탕으로 비교우위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특정지역의 특정산업 순수출이 특정산업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sup>18)</sup>. 이 지수는 특정한 업종이나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순수출비율지수 또는 국제경쟁력 지수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sup>19)</sup>.

i 산업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sup>20)</sup>.

$$TSI_i = \frac{(X_i - M_i)}{(X_i + M_i)}, -1 \leq TSI_i \leq 1 \quad (2)$$

여기서,  $X_i$ 와  $M_i$ 는 각각 i 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동일 산업내의 수출과 수입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때, 즉  $X_i = M_i$ 일 때 0이 된다. 한편, 동일 산업 내에서 수출은 하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 즉,  $M_i = 0$ 일 때 무역특화지수는 1이 되고 반대로 수출이 0인 경우의 무역특화지수는 -1이 되어 이 지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무역특화지수가 -1인 경우에는 완전 수입특화라고 하고 반대로 +1인 경우를 완전 수출특화라고 한다. 무역특화지수 값이 1에 근접할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고 그 산업이나 제품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되어 두 나라 간 경쟁력 역시 그 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값이 음수를 나타내며 -1에 근접할수록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미약하거나 수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Ⅲ-2 >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비교우위 분류기준

품목군	기준	설명	표현 색상
제1품목군	$0.5 \leq TSI \leq 1.0$	경쟁력이 매우 강함(경쟁력 절대우위)	
제2품목군	$0.0 < TSI < 0.5$	경쟁력이 강함(경쟁력 비교우위)	
제3품목군	$TSI = 0.0$	경쟁력이 중립적(경쟁력 균형)	
제4품목군	$-0.5 < TSI < 0.0$	경쟁력이 약함(경쟁력 비교열위)	
제5품목군	$-1.0 \leq TSI \leq -0.5$	경쟁력이 매우 약함(경쟁력 절대열위)	

자료 : 심재희, “주요국 자동차산업의 인도시장 수출성과 분석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산업경제연구, 25(1), 2012, P.784

- 18) 조택희·김광민·이병주, 「충북지역 수출결정요인과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한국은행 충북본부, 2012, pp.352-354.  
 19) 김지현,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 및 보완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p.41-42.  
 20) 조택희·김광민·이병주, 「전계서」, pp.352-354.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TSI)가 0.5이상일 경우 수출특화 품목으로 선정하고 무역특화지수(TSI)가 -0.5이하일 경우 수입특화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2.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한 대세계 및 대중국 경쟁력 비교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의 10대 수출품목(품목순위는 2017년 기준으로 정한다)에 해당하는 ①전자직접회로(8542), ②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 ③환식탄화수소(2902), ④석유 및 역청유(2710), ⑤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 ⑥일차 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 ⑦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 ⑧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 ⑨반도체소자(8541), ⑩비환식탄화수소(2901)품목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단위로 각 품목의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고,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경쟁국 상위 4개 국가들의 무역특화지수(TSI)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 각 품목의 국가간 수출경쟁력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 1) 전자직접회로(8542)품목

중국시장에서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의 수입비중이 가장 큰 상위 5개국은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순으로 이들 국가 모두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TSI지수는 전부 정(+)의 값을 나타내어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 중 일본은 중국시장 내에서  $0.5 \leq TSI \leq 1.0$  범주에 속하면서 경쟁력 절대우위에 있으며 가장 높은 교역성과 상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시장 내에서 수출경쟁력이 가장 높은 일본에 이어 한국도 2013년과 2017년에는 TSI지수가 각각 0.62 와 0.55를 기록하며 중국시장에 대하여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의 수출경쟁력이 절대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0 < TSI < 0.5$  범주를 나타내며 경쟁력 비교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

중국시장에서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의 수입 상위 5개국은 대만,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이다. 대만, 한국, 일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기록하며 경쟁력 절대우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품목은 이들 3국의 수출특화품목이며 교역성과 상위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태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2013년까지는  $0.0 < TSI < 0.5$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2015년에는  $0.5 \leq TSI \leq 1.0$  범주로 상승하면서 경쟁력이 더욱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2011년에는 TSI지수가 -0.11로 경쟁력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과 2015년에는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  $-1.0 \leq TSI \leq -0.5$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는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어 세계시장에서의 TSI지수는 0.17, 중국시장에서의 TSI지수는 0.97로 크게 증가하여 중국시장에서는 경쟁력 절대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 3)환식탄화수소(2902)품목

환식탄화수소(2902)품목에서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이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하여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가지며 강한 경쟁우위와 교역성과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은 세계시장에 대하여는 비교열위에 있으나 중국시장에서는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기록하며 경쟁력 절대우위를 지니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시장에서  $0.5 \leq TSI \leq 1.0$  범주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출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시장에서는 TSI지수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하여 1을 기록하여 절대수출(즉, 완전수출특화)을 기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시장에서 2011년에 TSI지수가 0.45를 기록하여 경쟁력 비교우위에서 2013년부터는 TSI값이 개선되어 절대우위로 전환되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5년 TSI지수가 1을 기록하여 완전수출특화를 기록하였고 그 외 기간에도 1에 가까운 TSI값을 나타내면서 중국시장에 대하여 절대수출에 가까운 교역구조로 경쟁력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다.

#### 4)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품목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품목에서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은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일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하여 세계시장에 대하여  $0.0 < TSI < 0.5$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는  $0.5 \leq TSI \leq 1.0$  범주의 값으로 절대우위를 나타내고 있어 세계시장에서보다 더욱 수출경쟁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는 세계시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5 < TSI < 0.0$  범주에 머무르며 경쟁력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시장에서는 2015년에 비교열위에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0.0 < TSI < 0.5$  범주에 속하면서 경쟁력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출경쟁력 절대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TSI지수는 거의 1에 가까운 0.97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시장에서는 분석기간 내내 TSI지수는 1을 기록하여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시장에서 2011년에는 TSI값 0.01로 미약하나마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0.5 < TSI < 0.0$  범위로 하락하여 비교열위로 전환되어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점차 약화되어 2015년부터는  $-0.5 < TSI < 0.0$  범위를 나타내며 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 일본은 세계시장에서는  $-0.5 < TSI < 0.0$  범위의 값을 기록하며 지속하여 경쟁력 비교열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중국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기록하며 경쟁력 절대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장에서의 TSI지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1을 기록함으로써 완전수출특화가 이루어졌다.

#### 5)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품목

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품목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은 한국, 베트남, 일본, 대만,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수출경쟁력 절대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1.0 \leq TSI \leq -0.5$  범주의 TSI값을 나타내어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고 경쟁력도 개선

되지 않아 수입에 특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세계시장에서 2013년까지는  $0.0 < TSI < 0.5$  범위의 값으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TSI지수가 감소하며 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0.5 < TSI < 0.0$  범위의 값을 기록하며 지속하여 경쟁력 비교열위에 머무르고 있다. 대만은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TSI지수가  $0.0 < TSI < 0.5$  범주에서  $0.5 \leq TSI \leq 1.0$  범주로 개선되면서 비교우위에서 절대우위로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3년까지는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이후 TSI지수가 점차 개선되어 2015년에는 비교우위로 전환되고 2017년에는 TSI지수가 0.66을 기록하며 절대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세계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0.0 < TSI < 0.5$  범위의 값으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TSI 지수가  $-0.41$ 로 하락하며 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 중국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교열위에 있으면서 TSI지수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점점 수출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2017년 TSI지수는  $-0.7$ 로 경쟁력 절대열위를 나타내고 있다.

#### 6)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품목

중국이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품목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필리핀 순이다. 일본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0.5 \leq TSI \leq 1.0$  범주의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경쟁력 절대우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경쟁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레이시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에서  $-0.5 < TSI < 0.0$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열위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경쟁력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는 TSI지수가 0.67로 증가하면서 TSI지수가 0.04를 기록한 2011년보다 보다 경쟁우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5년에는 절대우위에서 비교우위로 감소하고 2017년에 다소 회복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대만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0.5 \leq TSI \leq 1.0$  범주의 값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경쟁력 절대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중국시장에서 2017년 TSI 값이 0.43으로 감소하면서 다소 경쟁력의 감소가 보이지만 여전히 대만은 이 품목에서 경쟁력이 우월하며 교역성과 상위를 나타낸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2011년에 TSI지수가

-0.39로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과 2015년에는  $-1.0 \leq TSI \leq -0.5$  범주의 값으로 하락하여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 절대열위로 전환되었으나, 2017년에는 TSI지수가 0.85을 기록하며 수출경쟁력이 아주 크게 강화되어 절대우위를 지니게 되었다. 중국시장에서의 변화도 세계시장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0.5 \leq TSI \leq 0.0$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2017년에 TSI지수가 0.96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출경쟁력 절대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세계시장에서 2013년에 TSI지수가 -0.49로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5년에는 0.64로 크게 증가하여 경쟁력 절대우위로 전환되었다가 2017년에는 TSI지수가 0.1로 감소하는 가운데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3년에 TSI지수가 -1을 기록하여 수출이 전혀 없는 완전수입특화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는 TSI지수가 -0.8을, 2017년에는 -0.43을 기록하면서 비교열위에 머무르고는 있으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력도 다소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 7)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품목

중국 수입시장에서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인 8486 품목의 수입 상위 5개국은 일본, 한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이다. 이들 국가 중 일본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하여  $0.5 \leq TSI \leq 1.0$  범주의 값을 기록하며 경쟁력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여 8486품목은 중국시장에서 일본의 교역성과 상위 품목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0.5 < TSI < 0.0$  범주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열위에 머무르고 있으나, 중국시장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5 \leq TSI \leq 1.0$  범주의 값을 기록하며 수출 경쟁력 절대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8486품목에 대하여 세계시장에서는 수입특화가, 중국시장에서는 수출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에서  $0.0 < TSI < 0.5$  범위의 값을 기록하며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교우위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시장에서는  $0.5 \leq TSI \leq 1.0$  범주의 값으로 절대우위를 나타내며 세계시장에서보다 더욱 강한 수출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만은 세계시장에서 2011

년부터 2017년까지  $-1.0 \leq TSI \leq -0.5$  범위의 값을 기록하며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열위가 다소 적은 폭으로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면에 중국시장에 대하여는 2011년과 2017년에는 절대우위를, 2013년과 2015년에는 비교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속적으로 수출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분석기간 동안 세계시장에서는  $0.0 < TSI < 0.5$  범위의 값을 기록하며 경쟁력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는  $0.5 \leq TSI \leq 1.0$  범주의 값으로 절대우위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8)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품목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품목에서 중국시장에서의 수입비중이 큰 국가는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순이다. 독일은 세계시장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0.0 < TSI < 0.5$  범위의 값을 유지하여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기록하며 세계시장에서보다 경쟁력이 더욱 강한 절대우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본은 세계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유지하면서 경쟁력 절대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에 TSI지수가 0.62로 절대우위에 있었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0.0 < TSI < 0.5$  범주의 값을 나타내어 2011년보다는 다소 경쟁력의 약화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지속하여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경쟁력이 매우 강한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시장에서 2017년에는 TSI지수가 0.43을 기록하여 이전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 대하여 모두 경쟁력이 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0.5 < TSI < 0.0$  범위의 값으로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시장에서는 이보다 낮은  $-1.0 \leq TSI \leq -0.5$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경쟁력 절대열위가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0 < TSI < 0.5$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우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TSI지수가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3년까지는 절대우위를 보이며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2015년에 TSI지수가 0.36으로 비교우위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는 TSI지수가

-0.08로 하락하여 경쟁력이 더욱 감소되고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다.

#### 9)반도체소자(8541)품목

중국의 반도체소자(8541)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상위 5개국은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이다.

대만은 분석기간 동안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0.5 \leq TSI \leq 1.0$ 범주의 값을 기록하여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7년에는 TSI지수가 2015년보다 약간 감소한 0.42를 기록하여 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는 2013년까지는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으로 경쟁력 절대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2015년부터는 비교우위로 전환된  $0.0 < TSI < 0.5$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시장에서 2011년에 TSI지수가 0.52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0.0 < TSI < 0.5$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다소 경쟁력의 감소를 보이고는 있지만 비교우위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에는 TSI지수가 0.38로 경쟁력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2013년부터 비교열위로 하락하여 2017년까지  $-0.5 < TSI < 0.0$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하여  $0.0 < TSI < 0.5$ 범위의 값으로 경쟁력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5년까지는 TSI지수 0.16으로 비교우위가 있었으나 2015년과 2017년에는  $-0.5 < TSI < 0.0$ 범위의 값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0.0 < TSI < 0.5$ 범주의 값을 기록하면서 변동 없이 경쟁력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세계시장에서 2015년까지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경쟁력 절대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2017년에는 TSI지수가 소폭 감소한 0.35를 기록하며 비교우위를 나타내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에는 TSI지수가 0.62로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2013년과 2015년에는 TSI지수가 음(-)의 값으로 계속 하락하여 비교열위에서 절대열위로 전환되었다. 이 후 2017년에 TSI지수가 0.1를 나타내며 비교우위로 다시 재진입하였다.



#### 10)비환식탄화수소(2901)품목

중국의 비환식탄화수소(2901)품목의 수입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위 5개국에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이다. 한국은 분석기간 동안 세계시장에서 지속하여  $0.0 < TSI < 0.5$  범주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는 이보다 더욱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1에 가까운 TSI값을 기록하고 있다. 즉, 한국은 비환식탄화수소(2901)품목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 절대우위를 점하며 수출에 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확고한 경쟁력 절대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은 세계시장에서 2011년에는 TSI지수가 -0.21로 비교열위를 나타내었고 2013년과 2015년은  $0.0 < TSI < 0.5$  범위의 값으로 비교우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2017년에는 TSI지수가 0을 기록하여 경쟁력 균형을 이루었다. 즉, 세계시장에서 이 품목에서의 수입과 수출이 동등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중국시장에 대하여는 분석기간 동안 지속하여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으로 매우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TSI지수가 +1을 기록하여 수출은 하지만 수입이 없는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시장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0.0 < TSI < 0.5$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경쟁력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7년에는 TSI지수가 0.50을 기록하면서 절대우위로 경쟁력이 개선되었다. 중국시장에서는 분석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하여  $0.5 \leq TSI \leq 1.0$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경쟁력 절대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2015년까지는  $-0.5 < TSI < 0.0$  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비교열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점차 경쟁력이 개선되어 2015년과 2017년에는  $0.0 < TSI < 0.5$  범위의 값으로 증가하여 비교우위로 전환되었다. 중국시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0.5 < TSI < 0.0$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비교열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TSI지수가 크게 개선되어 0.56을 기록하면서 절대우위로 전환될 만큼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환식탄화수소(2901)품목에서 중국수입시장점유 상위 5개국 중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수출에 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대중국 경쟁국간의 TSI지수 분석표

8542(전자직접회로) 품목_1순위										
구분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24	0.46	0.22	0.44	0.01	0.61	0.28	0.73	0.13	0.35
2013	0.33	0.42	0.26	0.62	0.02	0.28	0.24	0.72	0.08	0.32
2015	0.37	0.41	0.25	0.47	0.05	0.34	0.17	0.67	0.07	0.43
2017	0.36	0.47	0.44	0.55	0.03	0.34	0.16	0.6	0.07	0.32
9013(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 기기) 품목_2순위										
구분	대만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80	0.84	0.79	0.8	0.65	0.64	0.45	0.27	-0.11	-0.38
2013	0.81	0.87	0.8	0.83	0.65	0.75	0.41	0.41	-0.97	-0.88
2015	0.75	0.83	0.73	0.75	0.67	0.81	0.66	0.74	-0.85	-0.91
2017	0.80	0.90	0.59	0.67	0.66	0.85	-	-	0.17	0.97
2902(환식탄화수소) 품목_3순위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42	0.85	0.88	0.94	-0.54	0.65	0.7	1	0.45	0.99
2013	0.53	0.97	0.92	0.97	-0.11	0.91	0.61	1	0.51	0.99
2015	0.64	0.97	0.83	0.95	-0.05	0.87	0.7	1	0.59	1
2017	0.7	0.98	0.87	0.95	-0.12	0.93	0.88	1	-	-
2710(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 품목_4순위										
구분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39	0.9	-0.01	0.41	0.92	1	0.01	0.87	-0.31	0.67
2013	0.28	0.87	-0.04	0.1	0.97	1	-0.06	0.49	-0.29	0.71
2015	0.34	0.95	-0.01	-0.04	0.97	1	-0.16	-0.23	-0.20	0.76
2017	0.39	0.95	-0.01	0.03	0.97	1	-0.11	-0.48	-0.18	1
8529(라디오 TV 등의 부분품) 품목_5순위										
구분	베트남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36	-0.82	0.82	0.67	0.05	-0.31	0.27	-0.20	0.12	-0.43
2013	-0.69	-0.96	0.81	0.75	0.02	-0.35	0.22	-0.43	0.13	-0.44
2015	-0.66	-0.93	0.71	0.73	-0.02	-0.3	0.55	0.27	0.36	-0.5
2017	-0.66	-0.86	0.68	0.69	-0.11	-0.28	0.77	0.66	-0.41	-0.7
8548(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 품목_6순위										
구분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필리핀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91	0.66	-0.28	0.04	0.65	0.60	-0.39	-0.04	-	-
2013	0.89	0.79	-0.06	0.67	0.72	0.67	-0.65	-0.23	-0.49	-1
2015	0.9	0.79	-0.61	0.08	0.67	0.51	-0.79	-0.29	0.64	-0.8
2017	0.9	0.81	-0.32	0.47	0.67	0.43	0.85	0.96	0.1	-0.43

8486(반도체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 품목_7순위										
구분	일본		한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76	0.95	-0.58	0.82	0.09	0.65	-0.83	0.61	0.07	0.62
2013	0.74	0.88	-0.33	0.88	0.21	0.5	-0.82	0.39	0.23	0.68
2015	0.56	0.9	-0.26	0.87	0.34	0.66	-0.79	0.42	0.25	0.52
2017	0.66	0.91	-0.49	0.91	0.38	0.53	-0.63	0.70	0.35	0.51
8708(부분품과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품목_8순위										
구분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23	0.78	0.73	0.62	0.66	0.54	-0.14	-0.8	0.16	0.51
2013	0.23	0.83	0.66	0.46	0.74	0.61	-0.15	-0.68	0.15	0.53
2015	0.22	0.8	0.6	0.33	0.74	0.68	-0.21	-0.73	0.08	0.36
2017	0.2	0.73	0.61	0.41	0.66	0.43	-0.19	-0.62	0.01	-0.08
8541(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이와유사한반도체다이오드,광광성반도체다이오드(광전지는모듈·패널에조립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포함한다),발광다이오드,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품목_9순위										
구분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53	0.53	0.52	0.38	0.36	0.16	0.06	0.25	0.82	0.62
2013	0.53	0.55	0.04	-0.17	0.32	0.16	0.05	0.2	0.83	-0.03
2015	0.50	0.48	0.05	-0.38	0.35	-0.24	0.08	0.08	0.64	-0.52
2017	0.42	0.38	0.26	-0.07	0.39	-0.15	0.14	0.11	0.35	0.1
2901(비환식탄화수소) 품목_10순위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대세계	대중국
2011	0.25	0.85	0.77	0.93	-0.21	0.73	0.26	0.53	-0.22	-0.24
2013	0.42	0.99	0.9	0.98	0.10	0.94	0.32	0.94	-0.14	-0.34
2015	0.29	0.99	0.87	0.99	0.33	1.00	0.29	0.81	0.02	-0.15
2017	0.45	0.98	0.52	0.98	0.00	0.98	0.50	0.96	0.34	0.56

## 제 4 장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동태적 분석

### 제 1절 현시비교우위 동태적 분석

#### 1. 세계시장에 대한 현시비교우위 추이 분석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하여 세계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품목 중 RCA지수가 3이상을 기록하면서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전자직접회로(8542),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 환식탄화수소(2902), 라디오 TV등의 부분품(8529), 비환식탄화수소(2901) 5개 품목이며, 특히 전자직접회로(8542)와 환식탄화수소(2902)품목은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경쟁력이 더욱 개선되었으며,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은 아직까지는 높은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수값이 종전보다 떨어지고 있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 반도체소자(8541) 품목도 경쟁력 개선효과는 크지 않으나 비교우위를 지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품목은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7년에 RCA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수출경쟁력이 가장 크게 강화되었다. 이 들 10대 품목 가운데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이 수출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들, 특히 전자직접회로(8542),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 라디오 TV등의 부분품(8529)에서 대만과의 경합이 치열하며, 그 외 품목들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한국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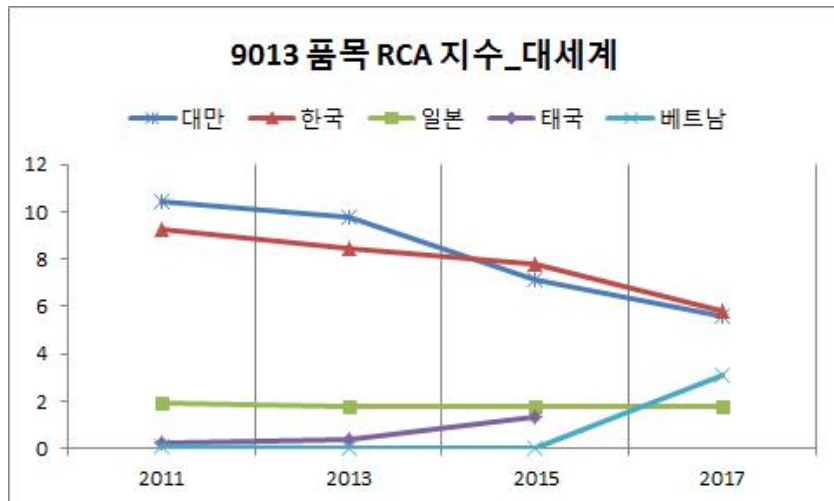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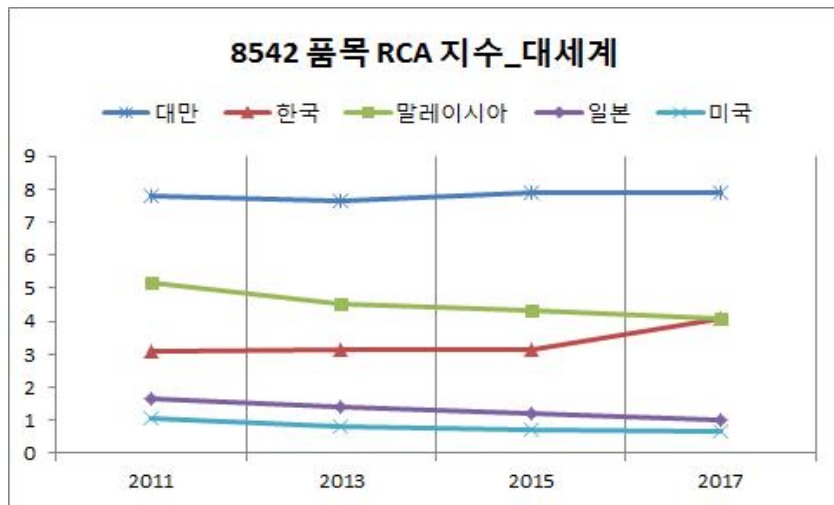
각 품목별로 경쟁국들의 비교우위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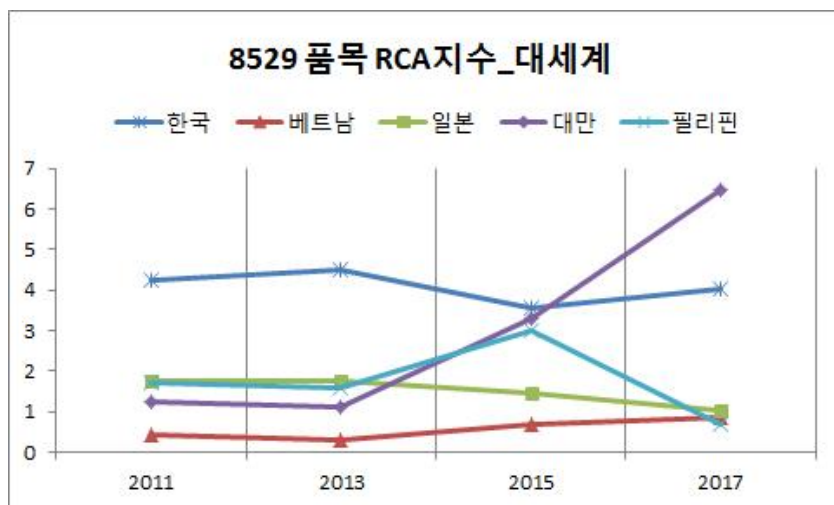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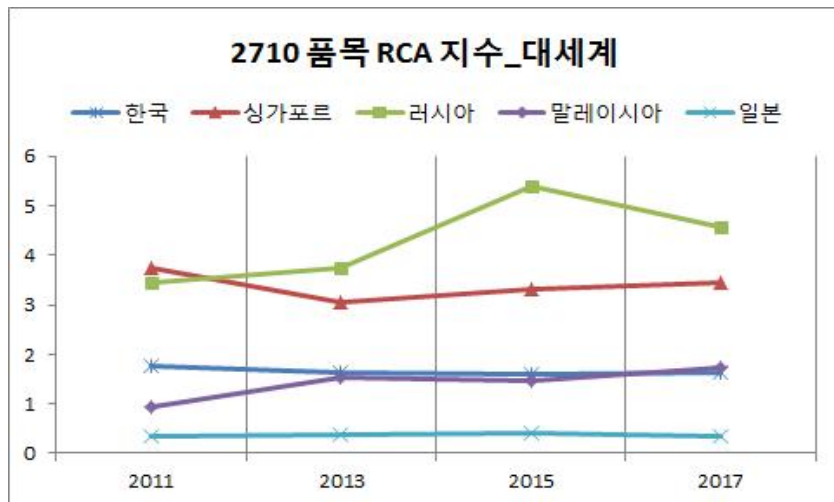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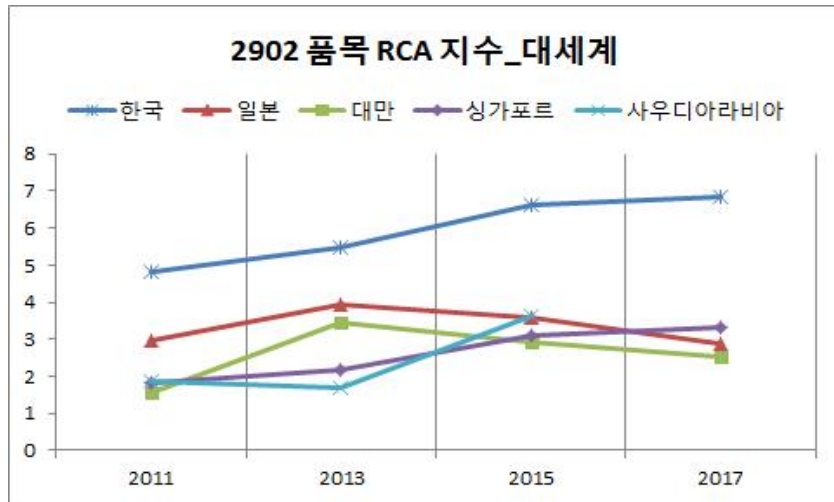
세계시장에서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에서 가장 비교우위가 강한 국가는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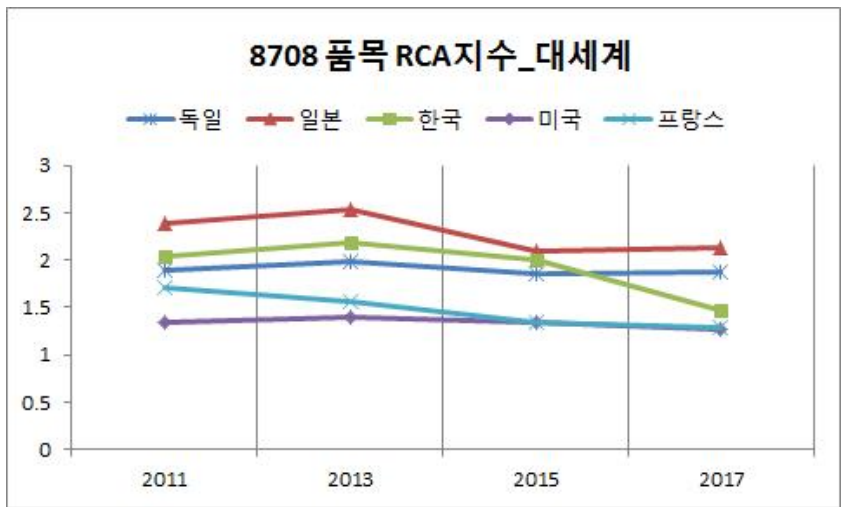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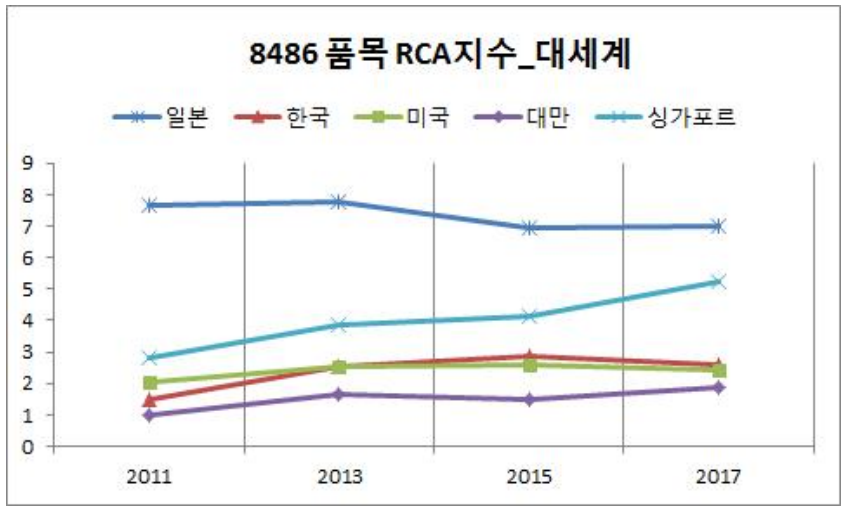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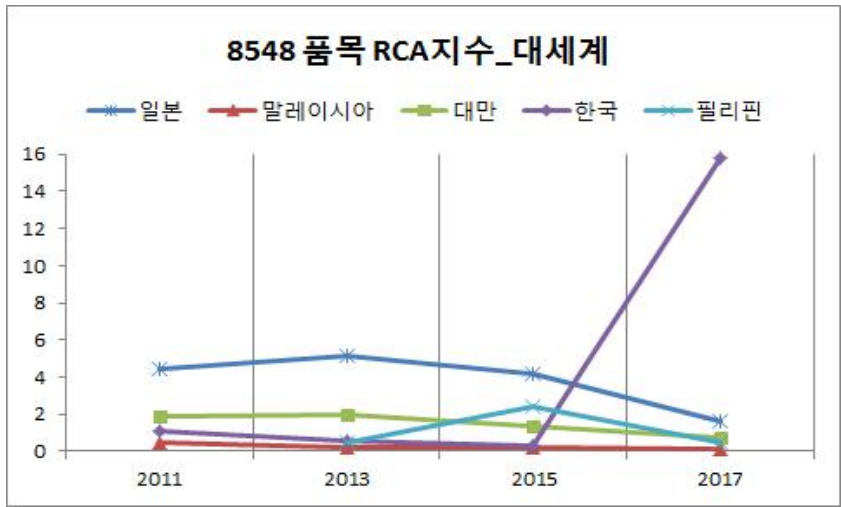
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경쟁하고 있다.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에서는 대만과 한국의 강한 경쟁우위가 두드러지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안정적으로 우위를 지키고 있으며 베트남의 성장이 돋보인다. 환식탄화수소(2902)품목에서는 한국의 비교우위가 가장 뛰어나며 경쟁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경쟁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뒤를 이어 일본, 대만, 싱가포르가 경합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품목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싱가포르이며, 뒤를 이어 한국이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 말레이시아와 경합하고 있다. 일본은 이 품목에서 비교열위가 지속되면서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TV등의 부분품(8529)에서는 한국의 비교우위가 가장 컸으나 2013년 이후 대만이 급격한 경쟁력 강화를 보이면서 2015년 이후에는 한국을 추월하였다. 뒤를 이어 일본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쟁력은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베트남과 함께 비교열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에서는 일본이 경쟁우위가 가장 크지만 RCA지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대만, 필리핀, 한국이 경합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에 한국의 경쟁력이 아주 크게 개선되어 2017년에는 한국이 가장 큰 경쟁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대만과 필리핀은 2017년에 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에서는 일본의 높은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뒤를 이어 한국, 미국, 대만이 경쟁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쟁력이 다소 개선되어짐을 보여준다.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에서는 일본, 한국, 독일이 프랑스와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일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쟁력은 2015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도체소자(8541)품목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이 높은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2015년부터 RCA지수의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일본과 한국이 경쟁력 감소 없이 비교우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비환식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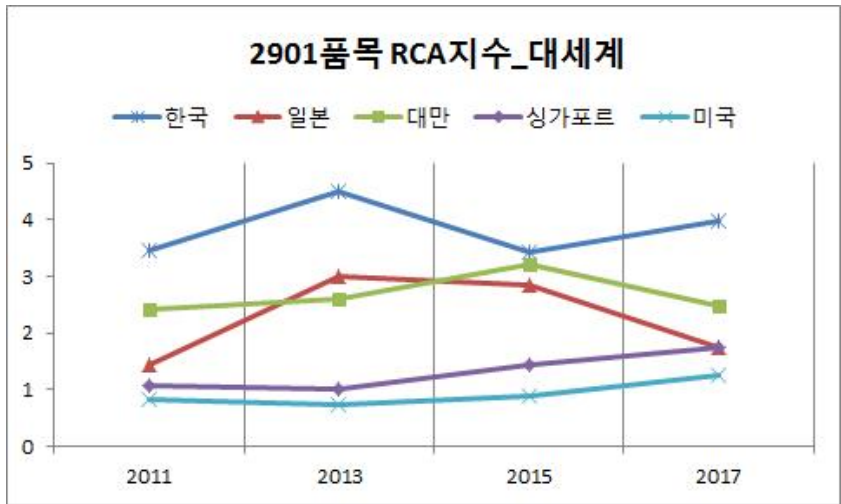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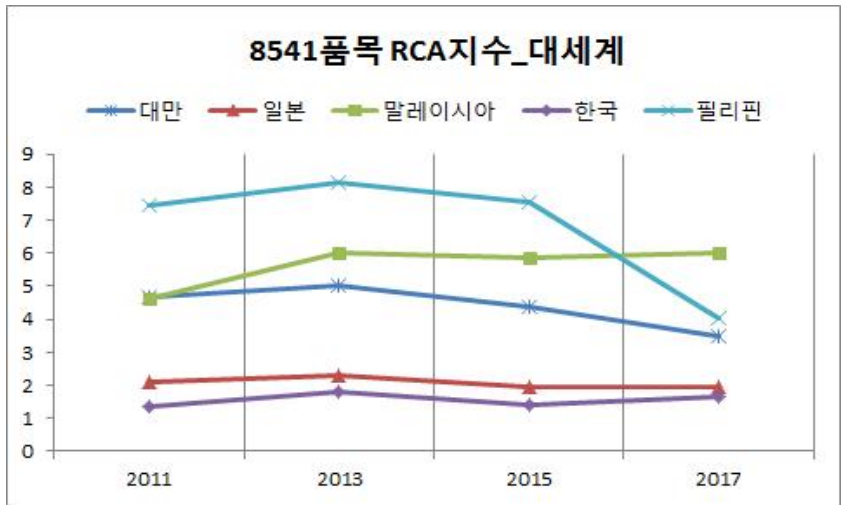
수소(2901)품목에서는 한국의 경쟁우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대만, 일본, 싱가포르, 미국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비교우위를 지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RCA지수의 상승, 하락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중국시장에 대한 현시비교우위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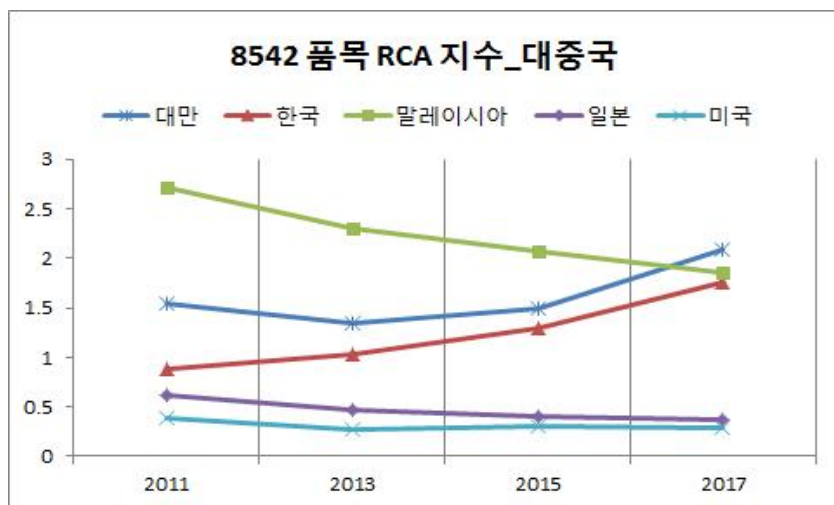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하여 중국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를 동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 모두가 RCA지수 1이상을 기록하며 각 품목별로 중국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 상위 품목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나 경쟁력 원인분석을 통해 시장변화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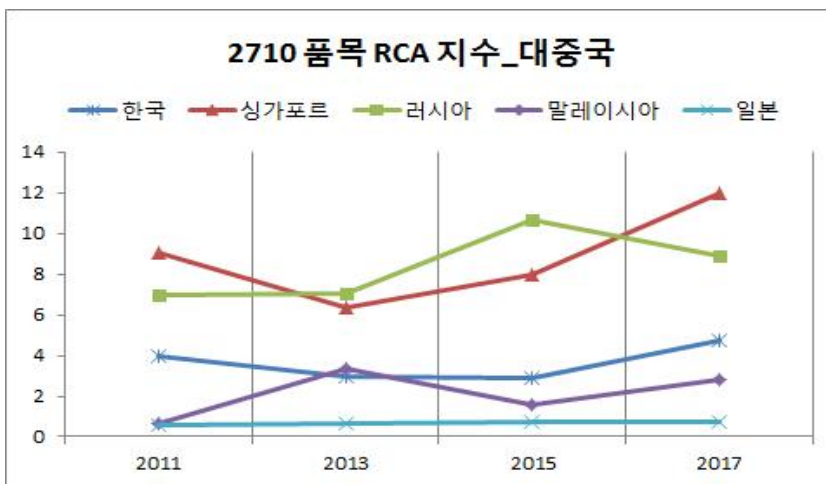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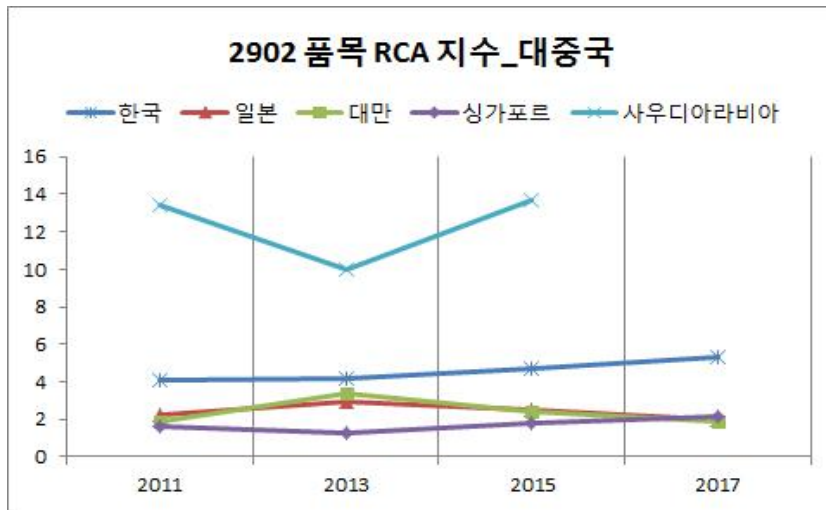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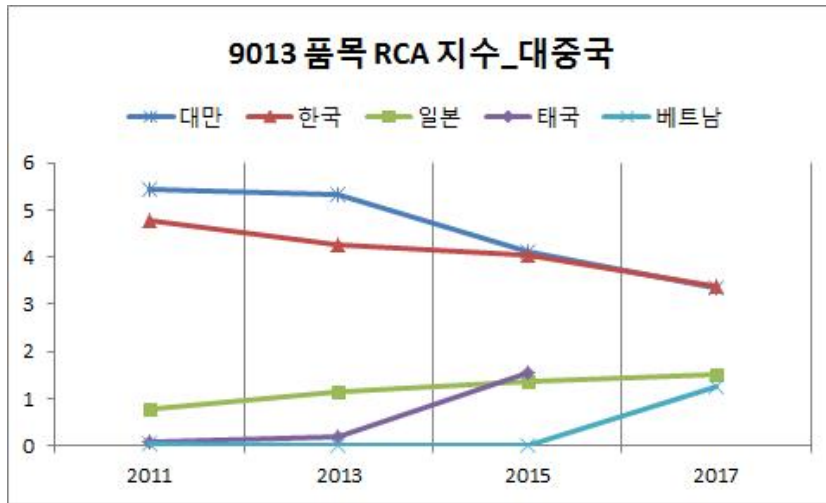
이들 10대 품목 중 RCA지수가 3이상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비교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은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 환식탄화수소(2902),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 라디오 TV등의 부분품(8529), 비환식탄화수소(2901)의 5개 품목이다. 전자직접회로(8542)와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의 3개 품목은 비교열위였으나 경쟁력이 개선되어 비교우위로 전환된 품목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은 2015년에 RCA지수가 0.3에서 2017년에 15.84로 매우 크게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가장 큰 폭으로 강화되었으며,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에서는 2011년에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 비교우위로 전환된 이후 점차 비교우위가 개선되어가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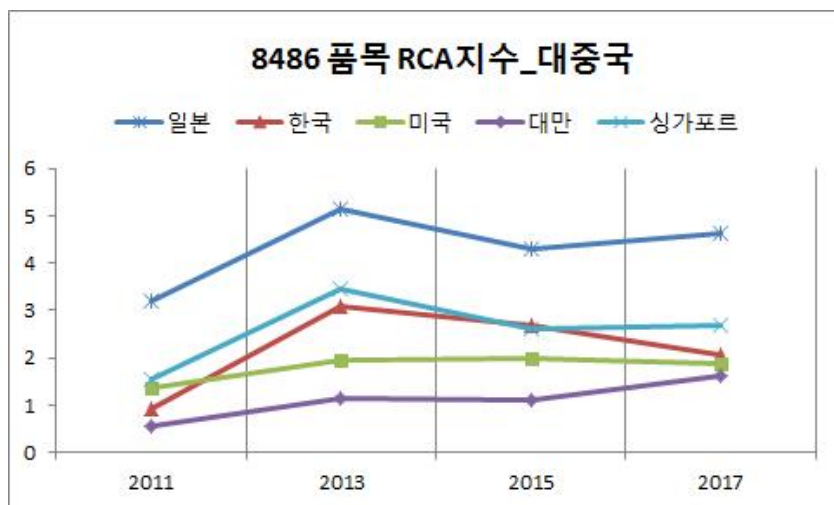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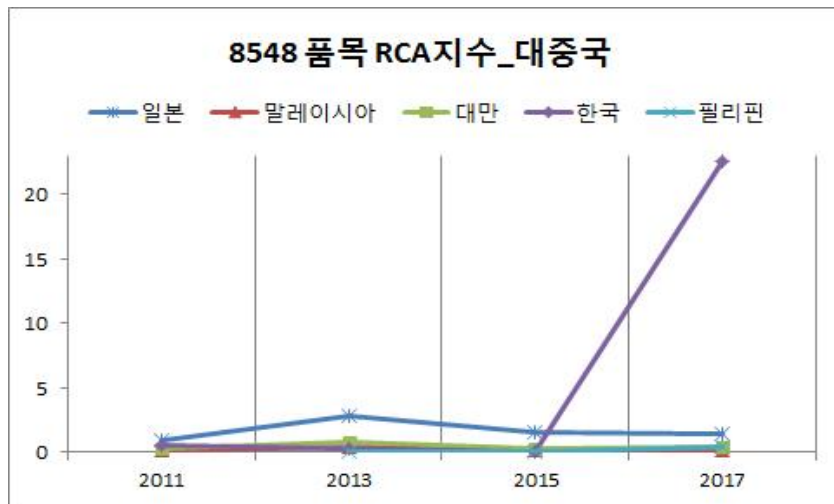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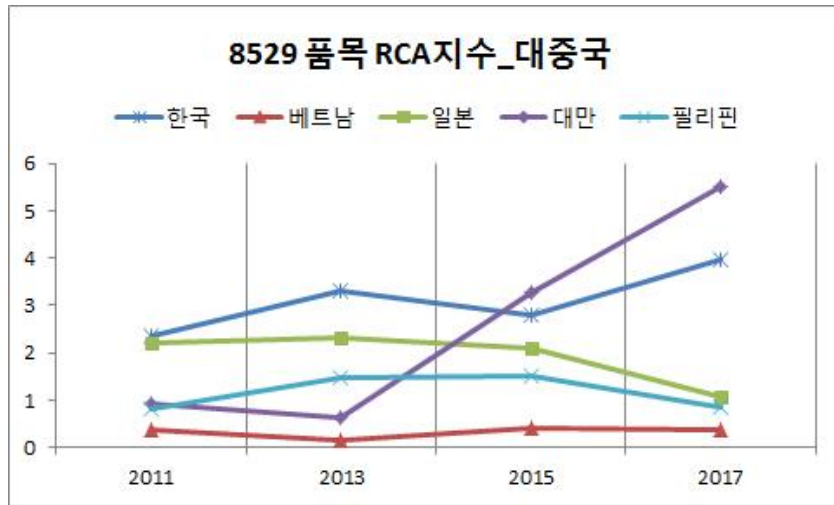
각 품목별로 경쟁국들의 비교우위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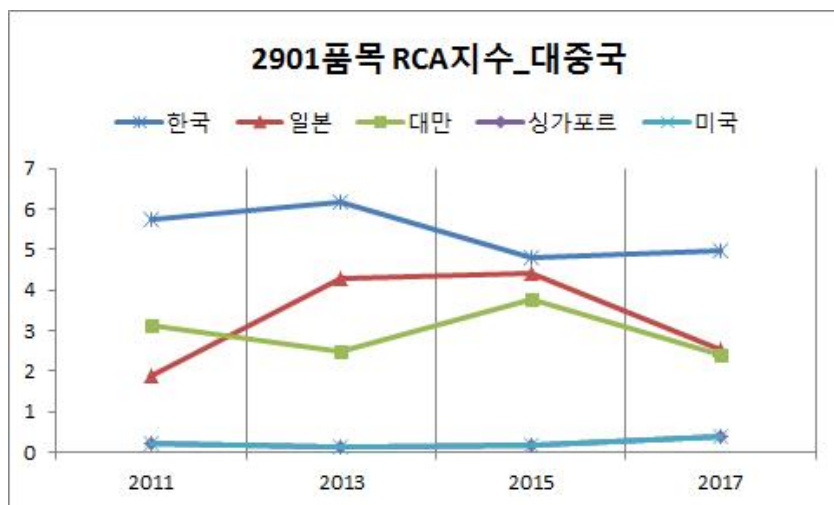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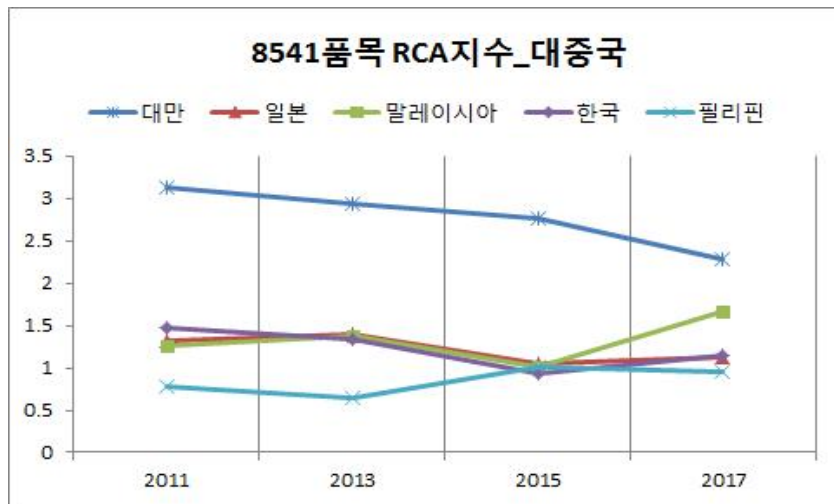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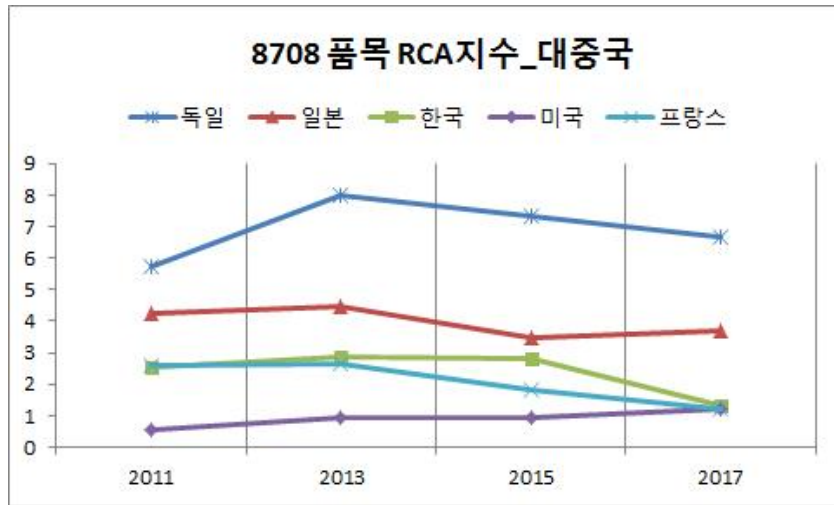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에서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한국의 순으로 경쟁우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들어 대만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경쟁열위를 보이고 있다.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높은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고, 뒤이어 일본이 지속하여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베트남이 2017년에 비교우위를 갖추게 되면서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식탄화수소(2902)품목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등하게 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뒤를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높은 경쟁우위를 지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싱가포르가 서로 유사한 경쟁력을 보이며 경합하고 있다.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품목에서는 러시아와 싱가포르가 높은 경쟁우위를 나타내며 경합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싱가포르의 우위가 러시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비교열위를 기록하면서 이 품목에 대하여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에서는 2013년 이후 대만이 크게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장 높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의 RCA지수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RCA지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7년에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되어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며, 베트남은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 품목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에서는 일본이 비교우위가 있고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은 비교열위로 경쟁열위에 있다. 한국도 줄곧 비교열위에 머물르고 있었으나 2017년에 RCA값이 매우 크게 상승하면서 급격하게 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싱가포르, 한국, 미국, 대만 순으로 비슷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품목에서는 중국 수입시장 점유 상위 5개국 모두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에서는 독일이 지속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2순위로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으며 뒤를 이어 한국, 미국, 프랑스가 유사한 비교우위로 경쟁하고 있다. 반도체소자(8541)품목에서는 대만의 비교우위가 가장 높으며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이 비슷한 수준의 비교우위로 경합하고 있고 필리핀은 근소한 격차로 비교열위를 나타냈다. 비환식탄화수소(2901)품목에서는 한국이 가장 강한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뒤를 이어 일본과 대만이 비교우위를 갖추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지속하여 비교열위를 보이며 경쟁열위에 머물러있다.









## 제 2절 무역특화지수 동태적 분석

### 1.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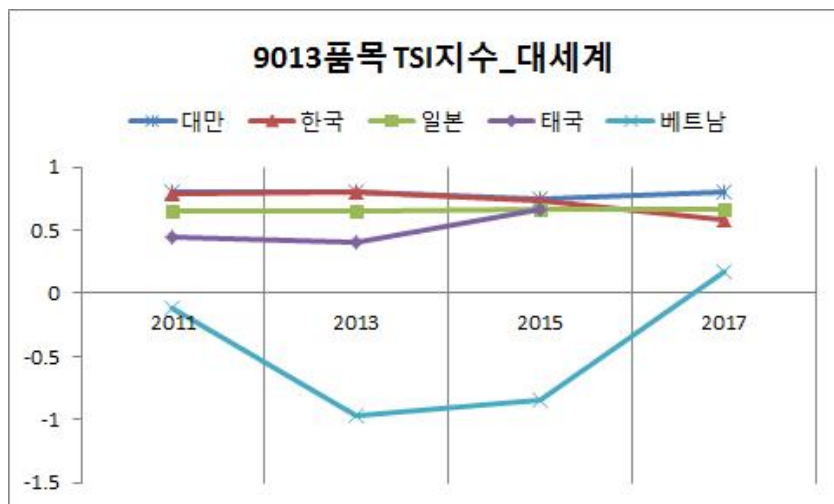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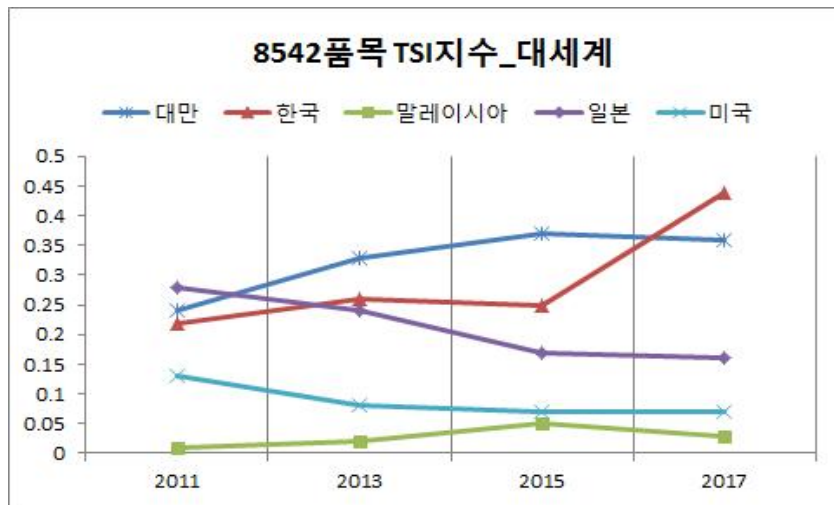
한국의 대중국 수출 10대 상품에 대하여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토대로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에서  $0.5 \leq TSI \leq 1.0$  범주에 있으면서 수출특화로 절대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으로는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 환식탄화수소(2902), 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 자동차부분품과 부속품(8708)의 4개 품목이다. 그리고  $0.0 < TSI < 0.5$  범주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품목에는 전자직접회로(8542),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 반도체소자(8541), 비환식탄화수소(2901)가 있으며,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품목은 2015년까지 수입특화로 경쟁력이 없었다가 2017년에 TSI값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출특화품목으로 전환되어 경쟁력 절대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은 TSI지수가 음(-)의 값으로 경쟁력이 없으며 수입에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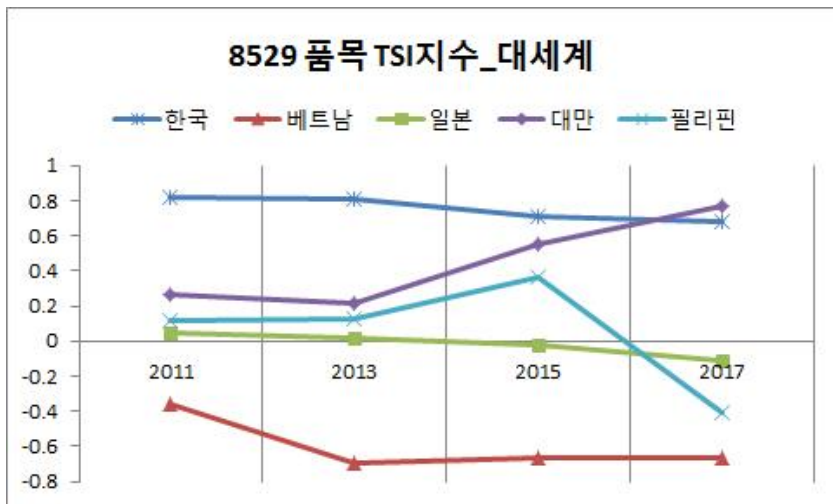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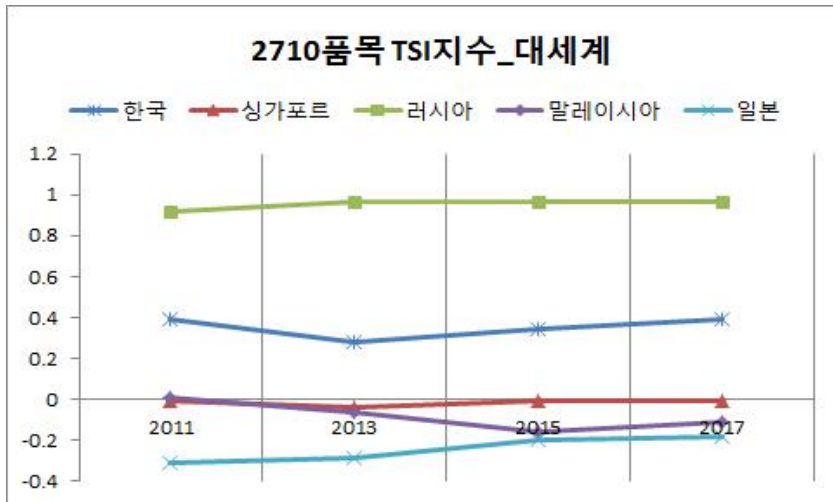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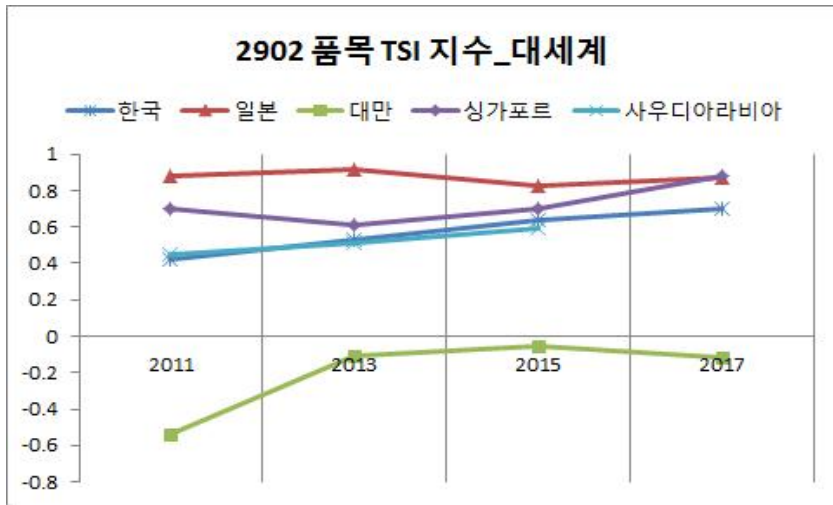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국가 간 경쟁변화 추이를 보면,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에서는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모두 TSI 지수는 정(+)의 값을 나타내므로 수출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에서는 대만, 한국, 일본이 경쟁력 절대 우위에 속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절대열위로 경쟁력이 매우 약하였으나 2017년에 비교우위로 전환되었지만 대만, 한국, 일본의 경쟁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식탄화수소(2902)품목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 모두  $0.5 \leq TSI \leq 1.0$  범주에 속하면서 절대경쟁우위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만이 비교열위에 머물러 있다.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품목에서는 러시아가 TSI지수 0.97을 기록하며 절대우위로 경쟁력이 매우 강하고 뒤를 이어 한국이  $0.0 < TSI < 0.5$  범주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 말레이시아는  $-0.5 < TSI < 0.0$  범주에 속하면서 경쟁력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열위는 더욱 커지고 있다. 라디오 TV 등의 부분품(8529)에서는 한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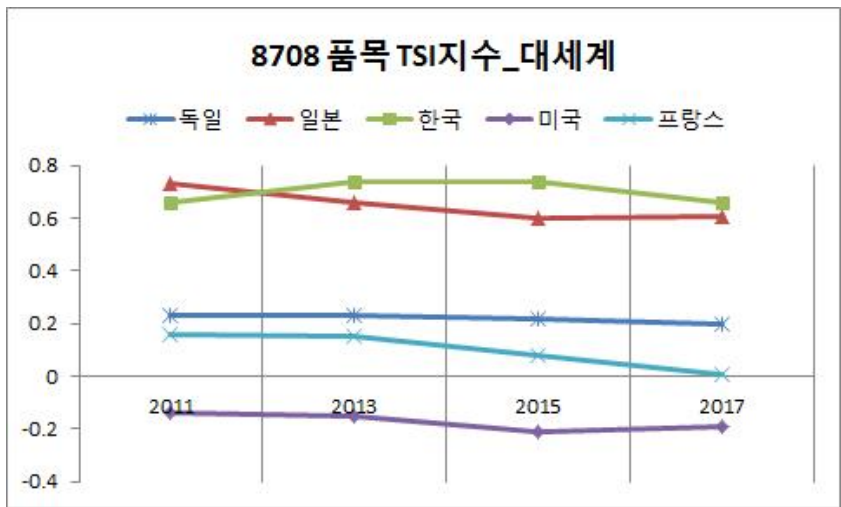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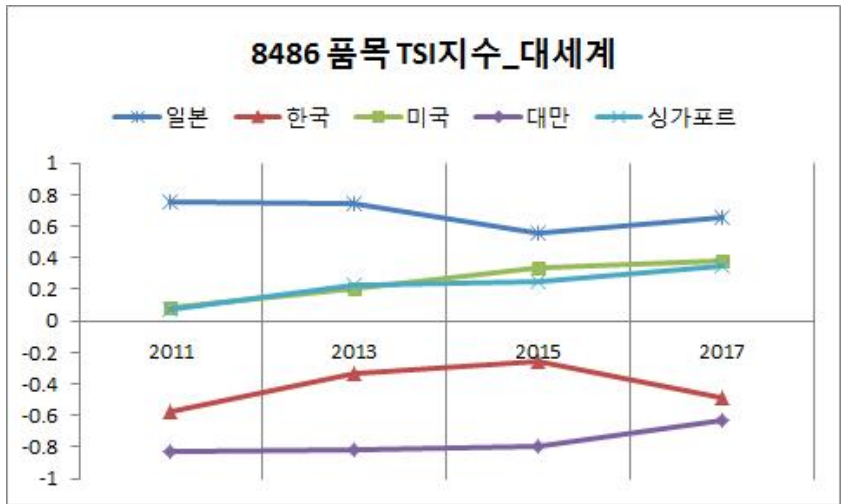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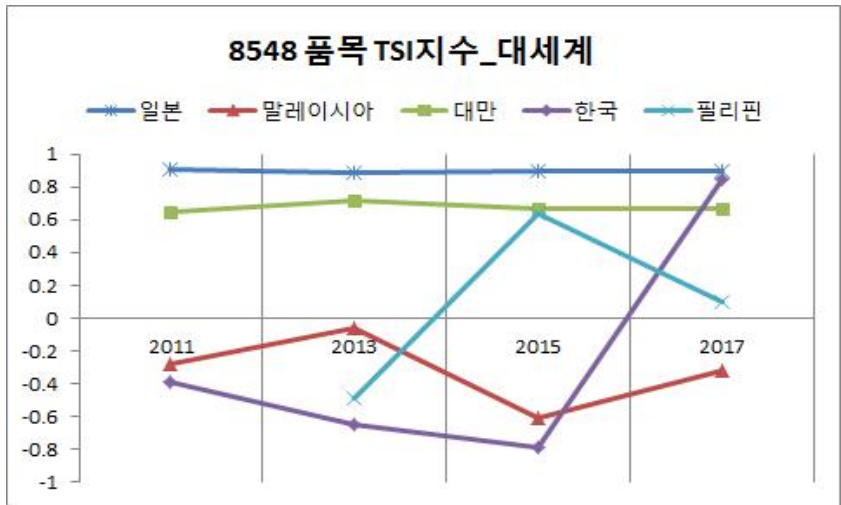
절대우위가 지속되고 있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TSI 지수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은 2013년까지는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2015년부터 절대우위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어 2017년에는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비교우위를 유지하다가 일본은 2015년에, 필리핀은 2017년에 TSI지수가 음(-)의 값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잃고 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 베트남은 비교열위에서 열위의 정도가 더 악화되어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고 2013년부터는 수입에 특화되었다. 일차전지 및 축전지 등의 부분품(8548)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경쟁력 절대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비교열위에서 절대열위의 범주에서 경쟁력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여전히 수출경쟁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품목에서 한국의 약진은 주목 할 만 하다. 2011년에 비교열위에서 경쟁력이 더욱 하락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경쟁력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2017년에는 TSI지수가 -0.79에서 0.85로 대폭 개선되면서 급격하게 경쟁력 절대우위를 확보하고 수출특화품목으로 전환되었다. 필리핀은 비교열위에서 절대우위로 개선된 이후에 다소 경쟁력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에서는 일본이 지속하여  $0.5 \leq TSI \leq 1.0$  범주에 속하는 절대우위를 차지하며 강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가  $0.0 < TSI < 0.5$  범주를 유지하면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이 품목에 대하여 경쟁력이 없으며 특히, 대만은 절대열위로 한국보다 수입특화도가 더 크다.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8708)에서는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4국이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절대우위를 지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독일과 프랑스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으나 독일의 비교우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프랑스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품목에서 미국은  $-0.5 < TSI < 0.0$  범주에 머무르고 있어 비교열위로 경쟁력이 약하다. 반도체소자(8541)품목에서는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의 5개국 모두가 경쟁우위를 나타내며 경합하고 있다. 절대우위에 있었던 필리핀과 일본의 경쟁력은 이전에 비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말레이시아의 경쟁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는 현재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환식탄화수소(2901)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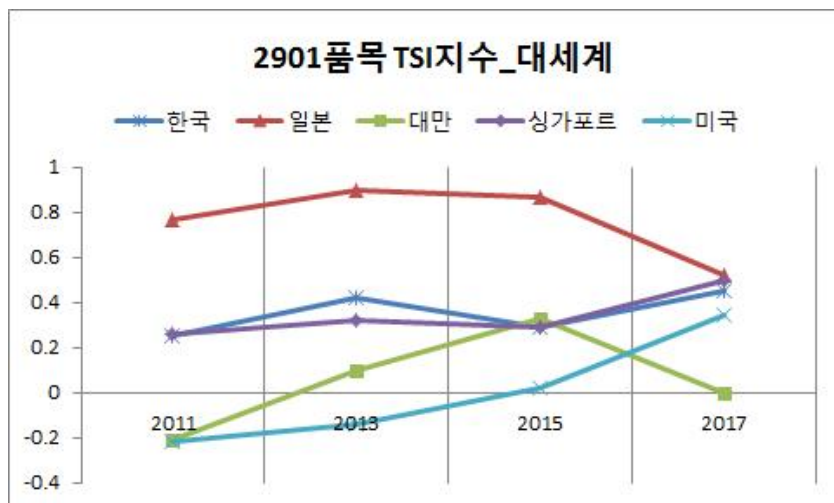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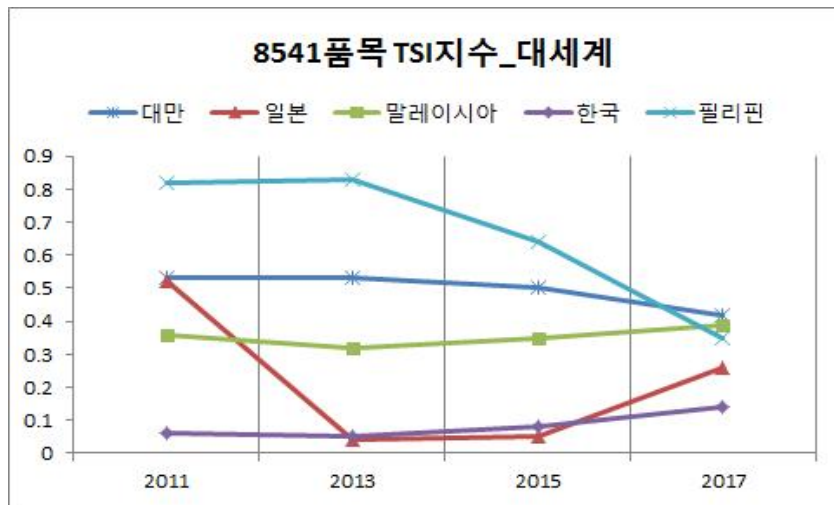


목에서는 일본이 절대우위를 갖추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 싱가포르와 한국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2011년에는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우위를 확보하였다가 2017년에는 수입과 수출이 동등하게 이루어져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은 2013년까지는 비교열위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경쟁력이 개선되어 비교우위로 전환되었다.









## 2. 중국시장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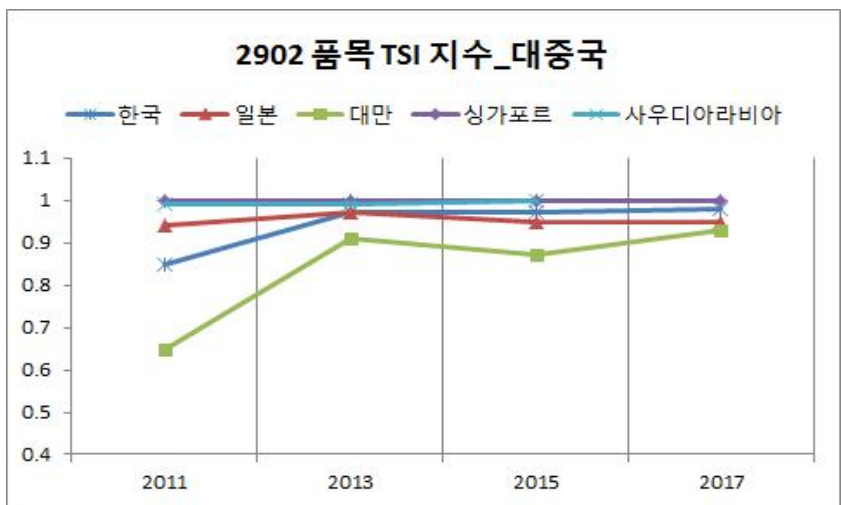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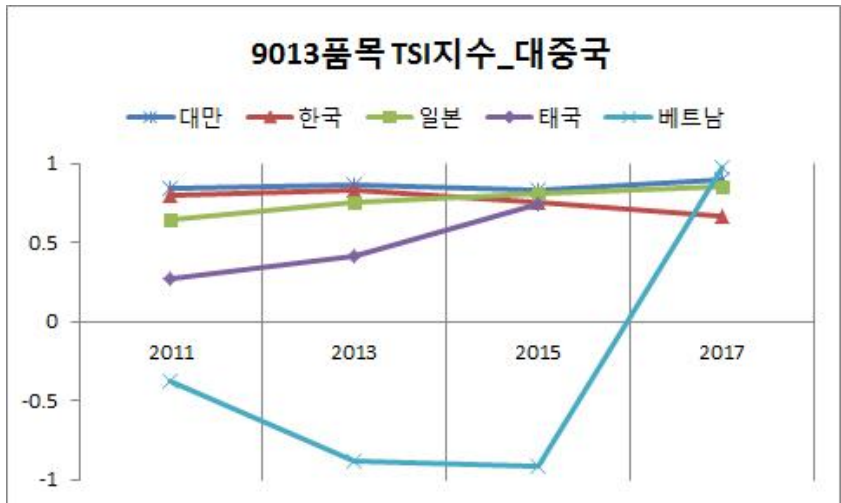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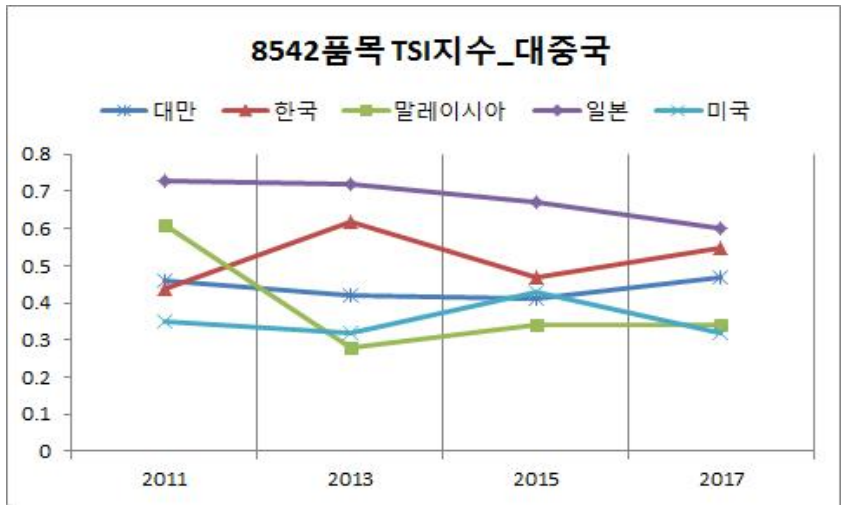
한국의 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하여 무역특화지수를 토대로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대 품목 모두가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 또는 절대우위를 나타내며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기간 내에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 상위 품목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들 10대 품목의 선전은 긍정적으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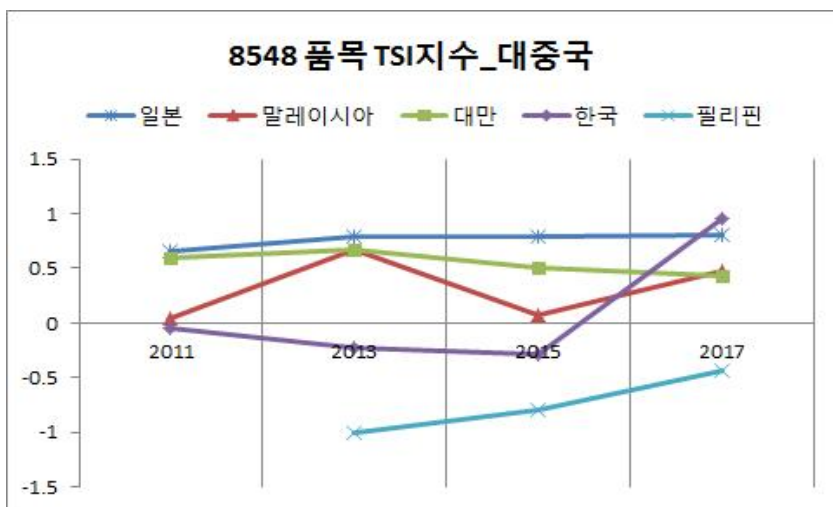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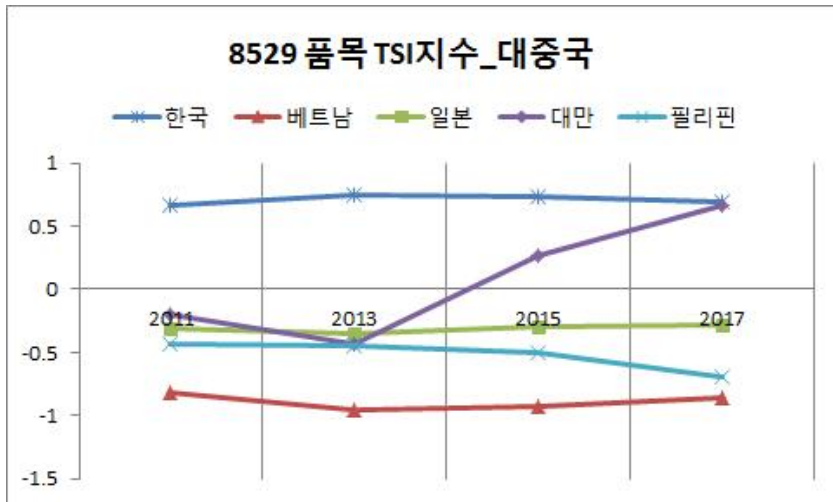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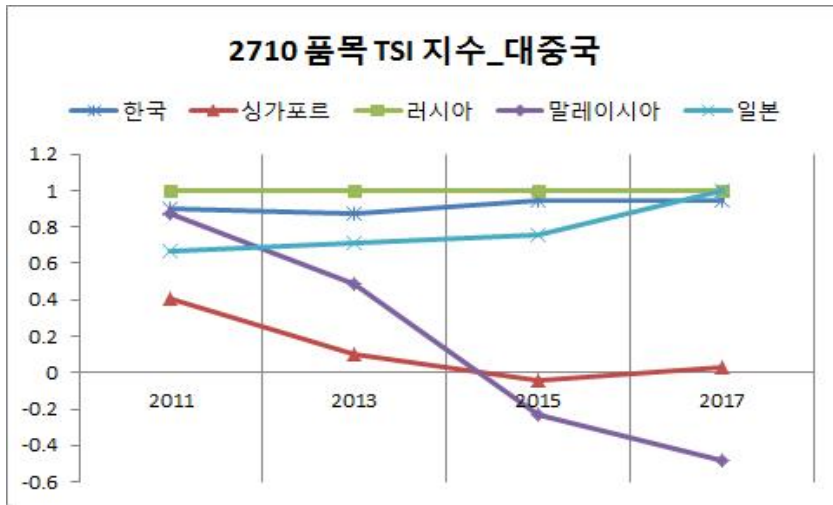
가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0.5 \leq TSI \leq 1.0$  범주에 있으면서 경쟁력 절대우위로 수출특화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9013), 환식탄화수소(2902),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 라디오 TV등의 부분품(8529),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 비환식탄화수소(2901)의 6개 품목이다.

품목별 국가 간의 경쟁력 변화 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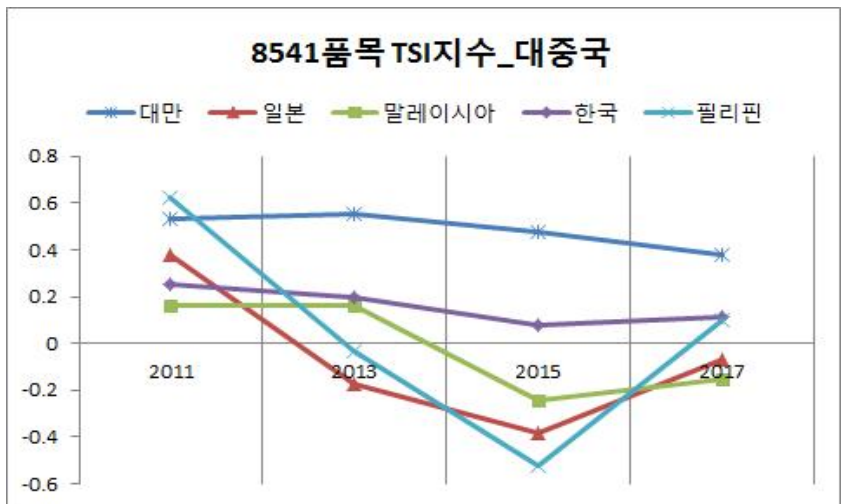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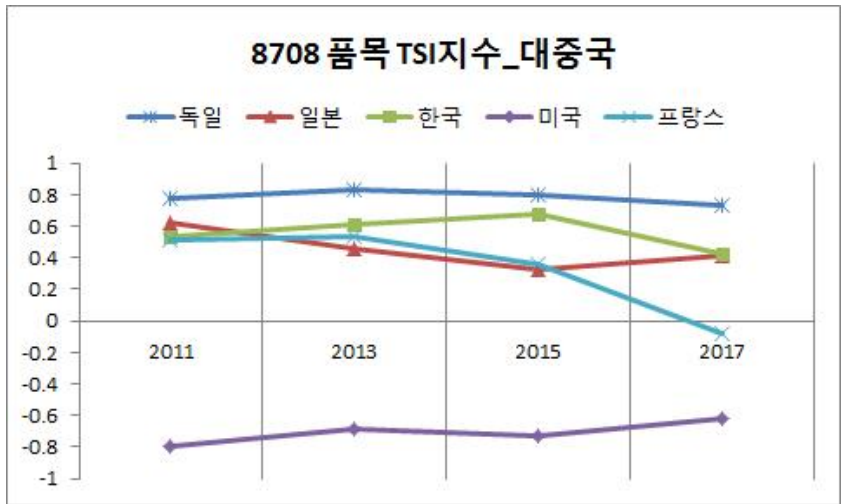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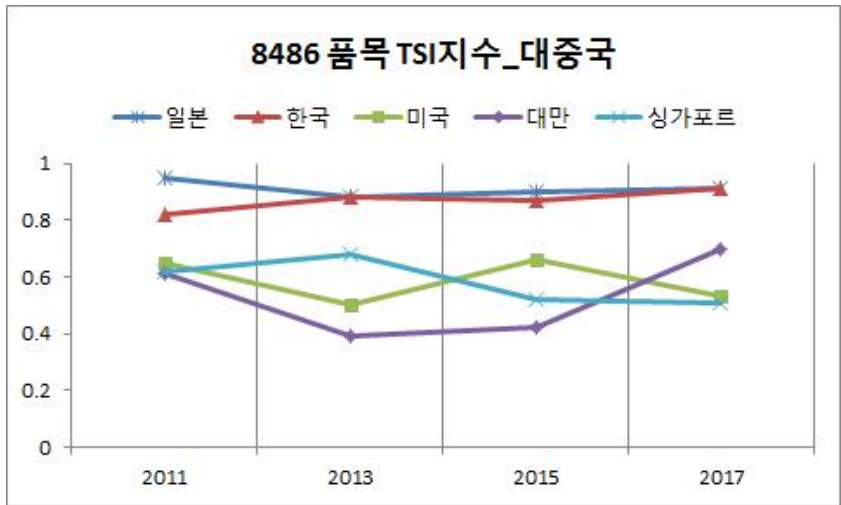
전자직접회로(8542)품목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5개국 모두가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본의 경쟁우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었지만 2017년 들어서는 일본, 한국, 대만이 유사한 TSI값을 나타내고 있고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와 미국도 아주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품목에서는 대만, 일본, 한국이  $0.5 \leq TSI \leq 1.0$  범주를 유지하고 있어 절대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만의 수출특화도가 가장 높으며, 태국도 2015년까지는 절대우위에 있었다. 특히, 베트남이 2015년까지는 경쟁력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2017년에 TSI지수가 0.97로 급상승하면서 경쟁력이 가장 크게 강화되어 대만, 일본, 한국을 모두 추월한 것은 눈여겨봐야할 변화이다. 환식탄화수소(2902)품목에서는 싱가포르가 지속하여 TSI지수 1을 기록하여 완전수출특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일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1에 가까운 높은 TSI값으로 절대우위를 점한 가운데 경합을 벌이고 있다. 즉, 중국 수입시장 점유 5개국 모두 환식탄화수소품목에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어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품목에서는 러시아가 지속하여 TSI지수 1을 기록하며 완전수출특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절대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절대우위에서 비교우위로 다시 비교열위로 지속하여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1년까지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2015년에 비교열위로 전환되었다가 2017년에는 다시 비교우위를 회복하였다. 라디오 TV등의 부분품(8529)에서는 한국의 경쟁력 절대우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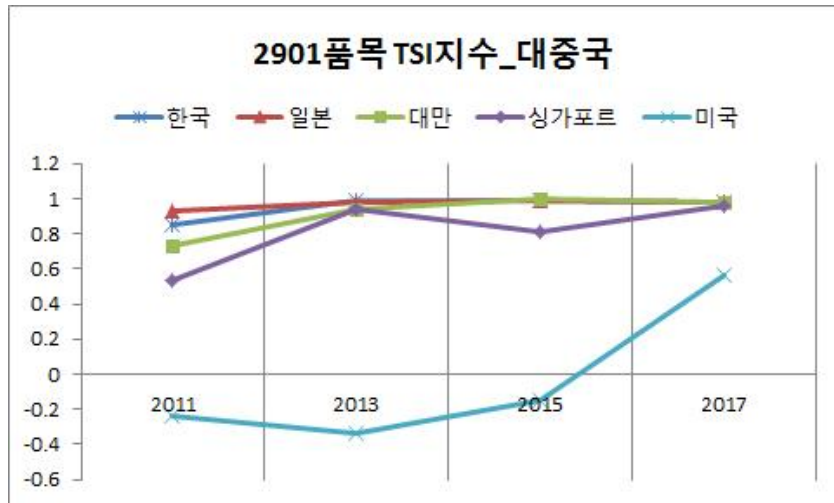
열위에 있던 대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어 2017년에는 TSI지수가 0.66을 기록하면서 한국과 대등한 수준의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은 모두 경쟁력 열위에 있으며 특히 베트남은 절대열위로 수입특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일차전자 및 축전자 등의 부분품(8548)에서는 일본의 절대우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어 경쟁하고 있다. 대만은 여전히 강한 경쟁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절대우위에서 비교우위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2015년까지는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2017년에 TSI값이 0.96으로 매우 크게 개선되면서 경쟁력 1위의 일본을 앞지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은 2013년에 완전수입특화를 기록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열위의 정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반도체 보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등(8486)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 미국, 싱가포르 즉, 중국시장 점유 상위 5개국 모두가 경쟁력이 매우 강한 절대우위 범주를 유지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모두 수출에 특화됨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 한국, 대만이 좀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8708)에서 지속하여 절대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절대우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되어 다소 경쟁력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절대우위에서 비교우위로, 다시 비교열위로 계속하여 우위가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을 더욱 상실해가고 있다. 미국은 절대열위가 지속되고 있어 수입 특화의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소자(8541)품목에서는 대만과 한국만이 비교우위를 지속하여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비교우위를 잃고 비교열위로 전환되었으며 필리핀은 2011년에 절대우위에 있었으나 이후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여 절대열위로 하락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비교우위를 회복하였다. 비환식탄화수소(2901)품목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4개국이 1에 가까운 TSI값을 지속하여 기록하면서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나타내며 서로 경합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은 2015년에 완전수출특화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2015년까지는 지속하여 비교열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2017년에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어 절대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경쟁력을 중국시장에서 해당품목의 수입점유 상위국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 최상위의 국가이며,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 중에서 최상위 3개 품목은 전자직접회로(8542),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9013), 환식탄화수소(2902)로 집계되었다.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 모두가 현시비교우위 측면에서 RCA지수 1이상을 기록하며 각 품목별로 중국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역특화지수 측면에서도 10대 품목 모두가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 또는 절대우위를 나타내며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기간 내에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 상위 품목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들 10대 품목의 선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들 10대 품목 중에서 특히 RCA와 TSI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경쟁력이 유지·확대되고 있는 품목들은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 기기(9013), 환식탄화수소(2902), 석유 및 역청유(원유를 제외)(2710), 라디오 TV등의 부분품(8529), 비환식탄화수소(2901)의 6개 품목이다.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서 한국과, 대만, 일본의 중국 시장 점유 순위가 인접하며 특히, 우리와 대중 수출 구조가 비슷한 대만과는 근소한 점유율 격차를 보이면서 한국-대만의 경합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추격으로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 점유율 위협의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대 대만 경쟁대책 마련과 내실의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 경쟁력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들도 경쟁력 원인분석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출경쟁력의 주요 요건은 관세인하 등의 가격경쟁력이 아닌 품질차별화 등의 비가격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즉,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제품차별화에 기반을 둔 산업의 수직적 확장과 고품질 산업 내 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중국시장에서 일본은 점유율이 지속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고 RCA나 TSI측면에서 본 수출경쟁력 또한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특정품목에서는 무역수지, 생산성, 기술수준에서 여전히 한국보다 우위이기 때문에 한국, 대만, 일본이 경합하는 품목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진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범용성 부품소재로 수출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국은 대중국 수출 시장 위축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틈새산업 개발을 통한 수출품목의 다양화 및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전략수립이 요구되는 바 이에 산업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무역은 2010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속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혁신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입수요의 고도화를 유발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수입수요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부품소재로 고도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동조화 정도에 있어 일본, 미국, EU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시장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등의 수입비중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중국의 전자제품 시장규모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전자직접회로의 수요는 클 수밖에 없으며, 중국이 의존하는 수입국은 대만과 한국이 절반 이상이다. 2017년 기준 대만의 수출 비중은 31.1%, 한국의 수출 비중은 25.3%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중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확대하는 가운데 일본에는 경쟁우위를 보이지만 대만에는 점유율 상승세와 RCA측면에서 열위를 나타낸다. 더욱이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통일전략 차원에서 수입 시 우대를 부여하며 수입에 특화해 나가고 있어 대만의 위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의 경쟁력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 접속부분품 수입시장에서 RCA지수를 지속 개선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이 지속적인 설비확충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있어 한국 중간재가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고, 또한 국내 업체들은 중국 내 수요대응, 관세 회피 등을 위해 중국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향후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수입 시장에서의 위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분석을 통하여 수입 추이와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정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시장특징을 파악하는 등 중국의 경제상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수출하는 수출품목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식기반 수출상품을 비교우위 품목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체결한 FTA 적극 활용을 지원하여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대중국 수출 기업에 대해 FTA활용을 지원하고 FTA활용율과 성과를 높이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통관, 서비스개방, 비관세장벽 등 중국 측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원산지 증명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무역전쟁,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 활발한 R&D투자를 통한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술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등 비가격부문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사업 전략 재검토 및 신 성장 산업 육성과

함께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거시적인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경쟁력으로 대표되는 수출경쟁력은 측정주체 및 목적, 시장과 시점 그리고 비교대상에 따라 측정지표와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경쟁력의 측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한 한편 제약요인도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파악하여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분석 연도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단위로 설정되었다는 것과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한정하였다는 점과 시장비교우위지수(MCA)분석은 생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과제는 분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다수의 경쟁력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품목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새로운 수출 시장개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수출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한국과 주요국 간의 수출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 심화라는 부정적 여건과 IT경기 호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력 품목 단가 상승이라는 수출에 우호적인 여건 속에서 한국의 선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수출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적 리더십에 기반을 둔 지속성장 가능한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 개척과 함께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R&D와 글로벌 경영역량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경희·한수범, “스마트 시대에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6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5, pp.309-336.

김성철, “우리나라 전기전자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pp.1435-1453.

김순자·장어성·맹해양·이유빈, “한국 화장품의 중국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3, pp.73-83.

김지용, “국산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 수출 집중도 및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제7권 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pp.351-365.

김지현(2011), “한국 IT산업의 미국, 중국, 일본시장에서 수출경쟁력 분석”, e-비즈니스연구, 제12권 제2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1, pp.433-453.

김태기·린린,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pp.129-149.

라공우, “미국시장에 대한 한·중 자동차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7, pp.257-275.

라공우, “한중 의료기기산업의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6, pp.177-198.

모수원, “중국 가전산업의 수출경쟁력: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하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pp.273-286.

박지혜·박철호, “한국과 중국 향장품의 수출경쟁력 비교를 통한 수출성장 전략”,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4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317-346.

신미화·이현훈, “한·중·일 의료기기산업의 비교우위 및 무역패턴 분석”, 무역학회지, 36권 2호, 한국무역학회, 2011. pp.25-26.

심재희, “주요국 자동차산업의 인도시장 수출성과 분석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

업의 발전방안 모색”, 산업경제연구 , 제25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pp.777-800.

윤소영(a),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 대중국 수출입특화품목 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 1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pp.1-8.

윤소영(b).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Vol. 1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pp.1-8.

이성민·김창범,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관계 증진을 위한 산업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 pp.145-165.

이유아·정윤세,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pp.93-114.

이진배, “한중일 화장품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경쟁력 변화 고찰”,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pp.745-760.

임준형·송규상, “한국과 미국 화장품제품의 경쟁력 비교”, 한일경상논문집, 제74권, 한일경상학회, 2017, pp.129-153.

장선미·유민화,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pp.1095-1112.

정분도·윤봉주, “한국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 pp.111-128.

초서량·황우·박형래(2014). “한·중 자동차 부품교역의 경쟁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4, pp.195-216.

한승권·최장우.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對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제20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pp.111-130.

#### <외국문헌>

Balassa, B., 1965, “Traded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33: 99-123.

Balassa, B., 1977,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evisited: An Analysis of Relative Export Shares of the Industrial Countries, 1953-1971”,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45: 327-344.

Balassa, B., 1986, "Comparative Advantage in Manufactured Goods: A Reappraisa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 (2) May: 315-319.

Commission, University of Florence.

Expenditure", Study prepared for the Directorate Enterprise of the European

Johnson, C., W. Deese, C. Jabara (2007),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Competitive Conditions Affecting U.S. Trade in Japan and Other Principal Foreign Markets", USITC Publication 3909,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Lee, H. H., C. M. Koo, and E. Park (2008), "Are Exports of China, Japan and Korea Diverted in the Major Regional Trading Blocks, The World Economy. Vol. 31, No. 7, pp. 841-860

Pammolli, F., M. Riccaboni, C. Oglialoro, L. Magazzini, G. Baio, and N. Salemo, (2005), "Medical Devices Competitiveness and Impact on Public Health

Tinbergen, J. (1962), Sh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e Twentieth Century Fund.

<웹사이트>

[www.kita.net](http://www.kita.net)

[comtrade.un.org](http://comtrade.un.org)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s Major Export Commodities in the Chinese Market

Dong-Woon Ki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China trade relationship has grown tremendously and significantly due to its demographic position and market siz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top 10 export items with their competitors in the Chinese market. For this purpose, trade competitiveness indices such as RCA and TSI have been applied to measure the comparative advantage. As a result, the RCA index for all of top 10 items is bigger than 1, thus showing comparative advantage. As for the TSI index, all of items has shown (+)value and has been specialized in export. Therefore Korea's major export commodities are highly competitive in the Chinese market especially, items such as liquid crystal devices(9013), cyclic hydrocarbons(2902), petroleum oils, oils from bituminous minerals ; not crude(2710), transmission apparatus(8529), acyclic hydrocarbons(2901).

In particular the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Taiwan is intensifying because of their similar export structures to China. In order for Korea to

develop its position in the Chinese import market, it is necessary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China's economic situation. In the future, China is expected to increase its demand for import of high-value products. Therefore, Korea should diversify the composition of export items with comparative advantage and develop high technology-based export products. In order to overcome the recent protectionism and global trade wars,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strengthen core R&D and global management capabilities with the focus of high-tech industries.

Key Words : Korea's Major Export Item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